



유영민 실장, 혹독한 국회 데뷔전 8



구자열 “무역 현장 목소리가 감없이 전달” 21

코스피(24일) 2994.98 (-75.11P)	코스닥 906.31 (-30.29P)
환율(달러당 원화) 1112.20 (+1.6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006% (-0.014%p)

“7.5조 아닌 28조 필요”... 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2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45%(75.11포인트) 내린 2994.98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3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1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이날 장 마감 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 관계자가 전광판에 찍힌 지수를 보며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안전성 문제 등 7개 항목 지적 “특별법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 기재부·법무부 등도 우려 표명 당청 “입법적 결정” 강행 의지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공항 주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6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16쪽가량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민주당이 주장하듯 동남권 관문 공항

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하고 이럴 경우 사업비가 28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부산광역시가 추산한 7조5000억 원, 민주당이 추산하는 10조 원가량의 예산보다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국토부는 부산시 안조차도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전문가 등이 재산정하면 약 12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고서 뒷부분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절차상 문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며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

다”고 적시했다. 이날 19일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부지선정, 사전절차 등을 놓고서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날엔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 시민본부와 만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사·도민 여러분이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김정태 회장, 하나금융 1년 더 이끈다

회추위, 차기회장 후보 추천 금융권 두번째 ‘4연임’ 회장

김정태(사진) 하나금융 회장이 사실상 4연임에 성공하면서 금융권 최장수 CEO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15일 현 김정태 회장(69)과 함영주 부회장(65), 박성호 하나은행 부회장(57) 등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인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64) 등 총 4명의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한 바 있다.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거쳐 1년 임기 연장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 후보자를 확정했다.

김 회장의 4연임은 내달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번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1년에 그친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회장 나이가 만 70세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성복 하나금융지주 회추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 및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글로벌 및 ESG 분야 등에서 그룹

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김정태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81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뒤 40년 넘게 은행권에 몸담아왔다. 2006년 하나대투증권 사장, 2008년 하나은행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하나금융 회장직에 오른 뒤 2015년, 2018년에 연임에 성공해 9년째 하나금융을 이끌어왔다. 김 회장은 금융권에서는 라오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이어 두 번째 4연임 회장이 된다.

한편, 25일에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등 5개 관계사 최고 경영자(CEO)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열린다. 김범근 기자 nova@

‘거품론’에 무너진 ‘삼천피’

기관·외인 순매도 2%대 급락 “증시 과열” 단기조정 불가피

코스피가 다시 3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1일 ‘삼천피(코스피 3000)’에 다시 올라서며 축포를 쏜 이후 15거래일 만에 이를 반납했다. ‘동학개미’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8조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르고,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이번엔(인플레이션이) 정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관련기사 5면

24일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국가 증시보다 더욱 큰 폭으로 내렸다. 코스피는 이날 전일 대비 2.45% 떨어져 2994.98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20위 중 삼성전자와 엔씨소프트를 빼내며 종목이 모두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이날 코스피에서 4318억 원을 순매도한 영향이 컸다. 외국인들은 6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순매도액이 2조6973억 원에 달했다. 기관도 1344억 원어치를 팔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5606억 원을 순

매수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주식을 6조 5948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올해 과열 논란을 빚은 만큼 단기 조정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이날 코스피가 급락으로 마감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올해 들어 4.23%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은 같은 기간 3.34%, 4141% 오른 만큼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전혀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심지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또한 올 들어 2.66% 상승에 그쳤는데, 코로나19 사태 충격에서 중국이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증시가 이례적으로 과열된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비싸기 때문”이라며 “개인이 올해만 37조 원을 샀다. 주식이 비싸서 결국 대규모로 매도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 최소한 1분기 실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4~5월 1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주식장에서 수익을 보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 코스피가 2700~28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기영 기자 pgy@

광명·시흥에 7만호 신도시... 2023년 사전청약

국토부 2·4대책 첫 신규택지 선정 부산 1.8만호·광주 1.3만호 공급

정부가 2·4 공급 대책 발표 때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경기도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 등 3곳을 확정했다. 수도권 첫 신규 택지인 광명·시흥지구의 면적은 여의도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만 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관련기사 4면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발표 20일 만인 24일 신규 공공택지 3곳을 공개했다. 대책 발표 이후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확산하고 있는 비판론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신규 택지 선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신규 택지 3곳에서 공급될 주택은 10만1000가구로, 전체 신규 택지 물량의 40%에 달한다.

광명·시흥지구는 면적이 1271만㎡로, 서울 여의도의 4.3배에 이른다. 3기 신도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시 중 최대 규모로 1, 2기 신도시 모두 포함하면 역대 6번째로 크다.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북 연결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으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 국토부 설명이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에선 1만8000가구, 광주 산정지구(168만㎡)에선 1만

3000가구가 나온다.

이들 3개 지역에선 다음 달 2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신규 택지에 대해선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민 반발에 부딪쳐 신도시(보급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좌절된 바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발표된 10만 가구 외에 나머지 15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나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우즈 살린 'GV80' 비결은 '크럼블 존'

전복으로 엔진 떨어져 나갔지만
실내 전반 원형 유지로 안전해
우즈, 구조 당시 이름 말할 정도
현지경찰 "살아남은 것은 행운"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LA 카운티 보안관들이 이날 발생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LA/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SUV 전복사고를 당하자 그가 운전했던 제네시스 GV80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고로 인해 엔진이 떨어져 나갈 만큼 충격이 컸음에도 구조 당시 우즈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형사고 충격 속에서도 승객석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 이른바 '크럼블 존(Crumble Zone)'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즈가 운전한 제네시스 GV80은 엔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것은 물론, 수차례 전복됐음에도 운전석과 동반석은 물론 실내 전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충돌 테스트를 포함해 완성차의 종합 안전도를 평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는 전면 충돌 때 앞부분이 최대한 찌그러져야 오히려 안전도가 높다"며 "대신 승객이 머무는 공간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도록 설계한다"고 말했다.

우즈는 23일(현지시간) 오전 7시 12분께 LA 카운티에서 GV80을 몰다 전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우즈를 구조한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운전석 쪽으로 누운 제네시스 GV80의 앞 유리를 깨고 우즈를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즈는 사고 당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의식이 뚜렷했다. 다만 다리 복합골절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는 충돌사고 때 쉽게 찌그러지는 크럼블 존과 승객이 머무는 세이프티 존으로 나뉜다. 크럼블 존은 최대한 찌그러지면서 1차 충격을 흡수한다. 세이프티 존은 외부 충격에도 철옹성처럼 승객을 보호하는 게 임무다.

우즈가 몰던 제네시스 GV80은 내리막길 곡선 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며 넘어갔다. 이후 여러 차례 구르며 반대편 차선의 연석과 나무 등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차는 반대편 도로에서 약 9m 떨어진 비탈에 운전석 쪽으로 누운 채 멈췄다.

앞범퍼와 엔진룸은 충격을 흡수하는 크럼블 존이다. 이후 앞 유리와 승객석 전체는 세이프티 존에 속한다. 이번 타이거 우즈의 사고에는 크럼블 존과 세이프티 존이 각각 제 역할을 해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사고로 제네시스 GV80은 수차례 전복됐지만 차 지붕이 무너지지 않았다. 김준형 자동차전문기자 junior@

현지 경찰은 "전복 사고에도 차량 내부가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면서 "우즈가 살아남은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자라는 아이 울고

허술한 학폭 예방 대책

어린시절 치기로 치부해선 안돼
인권 감수성 교육 등 해결책 필요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자매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 폭력(학폭)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심각성과 폐해가 재조명되고 있다. 학폭은 어린 시절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고, 피해자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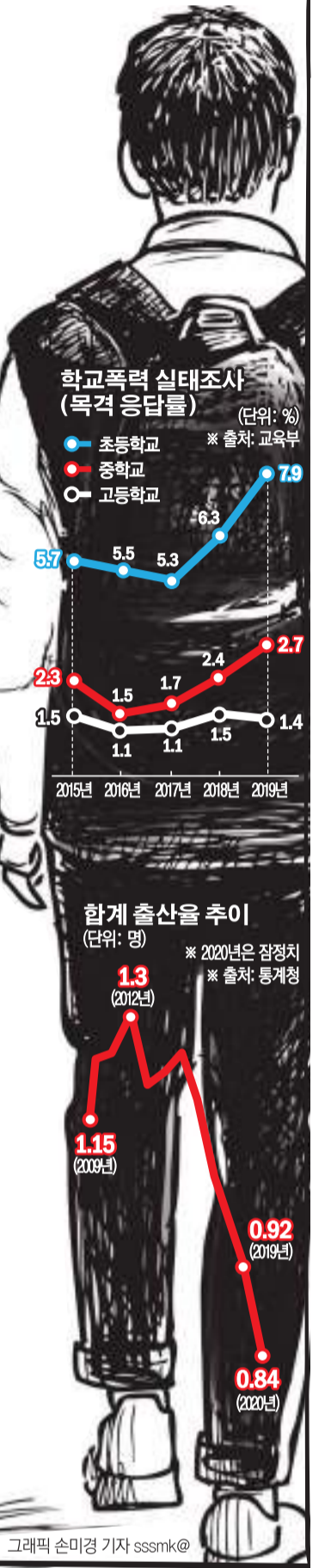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정부의 학폭 예방 대책이 허술하고 미흡한 대응에 대한 피해자의 불신이 시간이 지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형태로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폭은

범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인권 감수성 조기 교육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3일 "학폭 피해를 호소하면 오히려 '이상한 아이' 취급을 당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이 도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 행위를 한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모호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학폭 미투 폭로는 사실상 '계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몇몇 유명인에 대한 (학폭 미투) 사건은 아동청소년에게 계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손현경 기자 son89@



자라날 아이 없다

저출산 기름 부은 코로나19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명 추락
거리두기 등 혼인전수 10.7% 줄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했다.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의 만이가 40대에 진입하면서 반등을 노릴 '마지막 기회'도 저물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보다 0.08명 줄었다. 모(母)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줄었다. 25~29세와 30~34세에서 각각 14.0%, 8.0% 급감했다. 기존 비혼·만혼 추세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로 출산을 포기한 가구가 늘어서다. 코로나19 위기는 이런 추세에 불을 붙이는 기름이 됐다.

문제는 올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

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보다 2만5600명(10.7%) 줄었다. 2018년 -2.8%, 2019년 -7.2%에서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혼인 건수 감소는 1~2년 뒤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출생아 수 27만2400명 중 33.9%(9만300명)는 결혼 2년 이내 출생아였다. 2018~2019년 합산 혼인 건수의 18.1%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 2만5600명 감소는 올해와 내년 출생아 수를 4600명 줄이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 지연되면 생계난을 이유로 한 소상공인·지역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계획 지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대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혼인·출산이 단순히 미뤄진 것이라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만, 미뤄진 게 아니라 청년들의 결혼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 코로나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저출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 KEPCO

“수송·보관 철통경호”... 백신접종 준비 ‘이상무’

삼엄한 경계 속 첫 출하... 물류센터에도 무장 군경
5일간 전국 각지 순차공급... 내일 오전 9시 첫 접종

24일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공급량은 34만7000도즈다. 이후 25일 32만6000도즈, 26일 32만7000도즈, 28일 28만4000도즈가 각각 출하된다.

26일 접종이 개시되지만 1호 접종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 순서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의 입소·입원자, 종사자가 (26일) 접종 대상이 된다”며 “모두 첫 번째 접종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접종자나 접종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AZ 백신은 65세 이상에 효과가 떨어진다. 이는 지적이 제기돼 국내에선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보류됐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별개로 AZ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1호 접종자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방역당국은 1호 접종자 논란과 무관하게 AZ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요한 건 ‘우리가 유효하다고 또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는가’이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AZ 백신

도)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유효성과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들이 보여주는 효과의 수치, 이상반응의 발생률의 수치는 어떤 것도 같지 않지만, 우리가 이 정도면 유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모두 넘어섰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질병청은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1차 접종 시 아나필락시스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특히 “코로나19 백신별 1·2차 예방접종 간격은 반드시 준수하고,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며 “AZ 백신의 접종 간격은 8~12주를 권장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의 간격을 둘 것을 요청했다. 동시접종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다.

한편,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위탁생산에 출하한 첫 백신 수송은 삼엄한 경계 속에 이뤄졌다. 백신이 입고된 물류센터는 보안시설로 지정돼 인근에



24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수송차량에 실려 군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보관창고로 이송되고 있다(왼쪽 사진). 서울 중랑구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과 구청 직원들이 백신 접종 사전 훈련을 하고 있다.



무장 군·경이 배치됐다.

이날 백신 수송을 담당한 안성식 경기 남부고속도로순찰대장(경정)은 “백신 수송 차량이 테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일요일까지 백신 수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이필형 지트리비엔티 백신유통사업부

지사장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백신접종 궁금증 A~Z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1년 만에 국내에서도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기저질환자 접종 가능, 임신부 제외 충분한 면역반응 형성 1~2주 걸려

◇기저질환자 접종은 가능... 임신부는 제외 =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염 가능성이나 중증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때 맞는 것이 필요하다. 접종 후에 기저질환 관련 약을 그대로 복용해도 된다. 그러나 임신부에 대해서는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유부는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한 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1·2차 다른 백신 맞으면 어떡하나 = 코로나19 백신은 동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주의로 2차 접종 시 다른 백신을 맞았더라도 추가 접종은 하지 않아야 한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접종 전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전에 다른 접종이나 음식 등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 장소에서 30분 정도 관찰해야 한다. 귀

가 후에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나 = 정부는 11월까지 국민의 70%에 백신을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전염력이 높아졌고, 백신 접종으로 모든 사람이 예방수준의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지역사회 환자 발생 수준이 충분히 억제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올해 안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해도 접종한 직후에 충분한 면역반응이 형성되지 않고, 충분한 면역반응이 형성될 때까지는 적어도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거나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발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 박미선 기자 only@



흡연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 ✓ 흡연 시 마스크를 벗고 손가락을 입에 가까이 가져가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니코틴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몸 속 수용체(ACE2)를 증가시켜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흡연은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암 같은 질병을 야기하며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금연치료기관
www.nhis.or.kr 접속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클릭

코로나19는 마스크로 셀프백신! 금연은 금연치료상담으로 헬프백신!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광명·시흥 2025년 분양...여의도까지 20분 교통망 구축

국토부 1차 신규 공공택지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 등 3곳에 총 10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구상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실제 공급 속도가 집값 안정 효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1차 신규 공공택지로 수도권 1곳과 지방권 2곳의 입지를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앞서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밝힌 신규 택지 25만호 물량 중 10만호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광명·시흥지구는 사실상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기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1271만㎡가 대상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광명·시흥지구에는 주택 7만호가 공급된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한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도심 주택 수요 흡수가 가능해 그동안 꾸준히 신도시 후보지 1순위로 거론돼 왔다.

서울 인근의 기존 신도시들은 동남권(남양주 양속,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과 서북권(고양 창릉, 일산, 김포)에 집중된 형태다. 서남권인 광명·시흥지구가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되면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구로·가산동 등 주요 업무지구의



공급 속도 따라 집값 안정 판가름 광명·시흥 GTX 연계 경전철 건설 부산 대저-서면 30분 철도 계획 “새 교통망, 주택건설보다 앞서야”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광명·시흥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1·2·7호선과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을 연결하며 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GTX-B노선과 연계한 철도 신설로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지하철 2호선 환승) 내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인 계획은 지구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광역교통대책과 함께 마련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광명·시흥 남북철도에 대해 “수요를 감안하면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도림에서부터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으로,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학운역 중 수요 분석과 기존 철도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 자족기능 높여야” =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지구도 1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 규모

로 조성될 부산 대저지구에는 주택 1만 8000호가 공급된다. 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서면까지 30분내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에 들어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주택 1만 3000호를 공급한다. 하남진곡산단과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도심 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교통망을 늘리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업계에선 구체적인 신규 택지 입지가 발표된 만큼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선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규 택지 역시 실제 교통인프라 구축과 조기 주택 공급 여부가 집값 향방을 가르는 최대 변

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며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서울권으로 볼 수 있어 경기 서남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시점이 2025년 이후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지적도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당장 꺾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번 발표를 호재 삼아 서울 금천·구로구 등 인근 지역으로 집값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역대 최대’ 10조 토지보상 예상...주변 지역선 “집값 떨어질라”

광명·시흥 주민 반응 보니 “정부 주도 개발 일방적 발표”

정부가 올해 첫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였다가 해제된 지역까지 다시 택지로 부활시켰다. 그만큼 정부는 몸이 달아 있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 이어지지는 갈 길이 멀다.

24일 정부가 부산 대저지구, 광주 산정지구와 함께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지구는 2009년에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전력이 있다.

9만여 가구 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공급 과잉 우려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문제로 2015년 사업이 무산됐다. 정부가 이번에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부활시킨 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에 남은 패가 없다는 방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택지에서 주택 착공과 입주가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난관은 토지 보상 문제다.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3기 신도시 5곳에서도 토지 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액을 두고 주민과 정부·LH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토지보상 컨설팅 업체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2009년 광명·시흥 지역에서 계획됐던 보상비가 8조 원인데 지금은 8조~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택지 사업 중 보상비가 가장 컸던 동탄신도시(6조 원)를 넘어서는 규모다. 최근 광명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 땅값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를 추진하며 토지 보상 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도 보상 문제에 있어선 자충수가 됐다. 주민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주민들은

그간에도 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정부 주도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지역 개발이 지체되고 있었던 탓이다. 반면 자체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은 정부 주도 개발에 반발한다. 주민 주도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했던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주민연합체의 윤승모 대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한번 없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중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경악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택지 개발을 떨떠름해 한다. 택지 개발로 주택이 대규

모로 공급되면 인근 지역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 시흥과 광명 일대에선 장현지구와 거모지구, 하안2지구, 학운지구 등 4만 가구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7만 가구 규모 광명·시흥지구가 더해지면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요즘 각 지자체는 배드타운보다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지역에서 반기지 않는다는 게 이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결국 진학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죠.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전국 대회 출전 명단에서 제외해 버리니까요.”

스포츠공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2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학폭 미투’(나도 학폭 당했다) 폭로가 뒤늦게 불거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A 씨는 “피해 학생이나 부모들은 조사 받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학부모들 사이에 어느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학생의 선수 생명은 끝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학연·지연 연결·힘 없으면 피해 = 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 지도자로 생활하는 B 씨는 “알게 모르게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아직 체육계는 학연, 지연을 무시하지 못하니 부모가 운동 선수 출신이면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프로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논란 증언을 시작으로 학교 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는 체육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퍼져 나갔다. 배우 조병

진학 때문에 참았던 스포츠 학폭 가해 선수 ‘영구 퇴출안’ 만든다

규·박혜수·(여자)아이들 수진까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축구 학폭’을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타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두 명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각각 최근 수도권의 한 명문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이고, 광주 지역의 한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당시 초등학교이었던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이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

는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다른 이들의 피해 폭로에 용기를 얻는 분위기다.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십몇 년 전에 입었던 피해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된 심리다.

◇교육부 학폭 선수 사실상 퇴출 = 학폭 피해자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2017년 0.9%(약 3만7000명)에서 2019년 1.6%(약 6만여 명)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

A 씨는 반복되는 학교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고소고발 조치가 돼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코치 등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었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 따르면 앞으로 학폭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정부가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포츠 구단과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할 방침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한다. 김소희 기자 ksh@

허술한 학폭 예방 대책

▶2면서 계속

현재 학폭은 별도의 처벌 법률이 없다. 학폭 발생 시 정도가 심할 경우 일반 폭행,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가벼운 징계의 경우에는 교사 재량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14세 미만일 때 저지른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불가능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력과 조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성인이 된 이후라도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의 기본 원칙이 되도록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M&A 규모 25.7조... PEF '차입매수' 위축 가능성

금리상승, 사모펀드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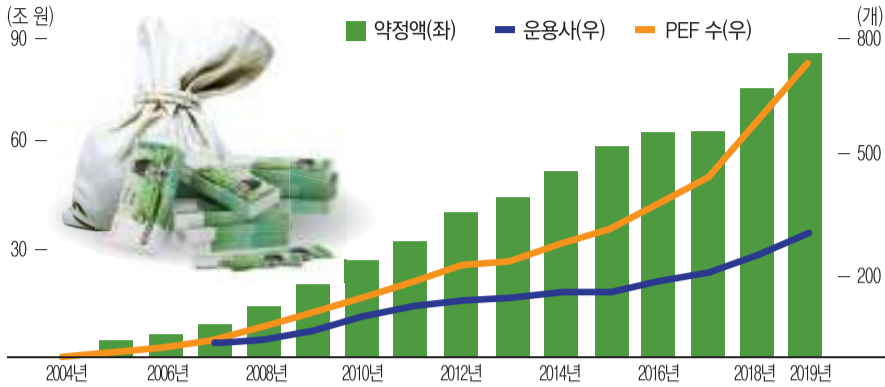
경영참여 PEF 15년새 30배 ↑
증시 조정 땀 투자금 회수 난망
기업, M&A 주도권 잡을 수도

“고금리 시대에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시장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가리키자 사모펀드(PEF)가 긴장하고 있다. 사모펀드 자금줄인 저금리 ‘차입매수(LBO)’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은 투자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는 또 다른 위협요인이다.

경영참여형 PEF 750곳이 출자자(LP)로부터 모집한 자금은 92조1573억원(지난해 3분기 기준)에 달한다. 경영참여형 PEF가 허용된 첫해인 2005년(2조8955억원)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그만큼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위협도 커진다. 사모펀드 시장 한 관계자는 “과다한 차입에 의존해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이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PEF 결성 규모



◇‘사모펀드(PEF) 힘 빠지나’=PEF는 M&A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M&A 시장 조사 기관인 머저마켓(Mergermarket)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총 500만 달러 이상의 국내 M&A 거래 건수는 258건, 거래금액은 236억 4800만 달러(약 25조7054억 원)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액의 36.9%는 PEF가 차지했다. 이 중 상당수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M&A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글로벌 사모펀드의 M&A 규모는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인 5590억 달러(약 616조 원)에 달했는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연준의 채권 매입 등이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했고, 사모펀드들은 값싸게 대출을 받아 새로운 거래에 나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가팔라지면 인수·합병 붐을 주도했던 사모펀드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며 차입매수(LBO) 방식 M&A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는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비용 부담 증가와 주식시장 약세 등이 맞물리면서 충격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리 상승이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주춤하게 만들면 주식시장을 밀어 올렸던 M&A 재료도 함께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주식시장이 본격 조정을 받는다면 사모펀드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업 M&A를 위해 정크본드 수준인 채권을 발행해 인수자금을 충당하는 LBO 규모는 매년 증가세다. LBO 펀드 수요가 커지면서 지난해 정크 등급 회사채 공급도 급증했다. 금융시장정보업체 레퍼티티브는 올해 CCC 이하 등급의 회사채 비중은 전체 회사채의 15%가 넘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값을 돈을 늘고 있지만,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35%대(23일 기준)를 기록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금조달과 수익 창출 순환 고리에 이상이 생긴다면 위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현재 많은 기업이 이자를 갚을 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차입매수는 경영상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염려했다.

◇M&A주도권 다시 기업으로 가나=M&A시장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최윤호 사장(CFO)은 지난 1월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보유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으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상장사 25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까지 개별 기준 누적 잉여현금흐름이 총 28조 145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세금과 영업비용, 설비투자액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잉여현금흐름으로 계산한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 A 씨는 “사모펀드의 빈자리를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희림 기자 wiseforest@

“금리상승 전 자금 확보”...회사채 발행 급증

사전청약마다 수조 원 몰려

SK머티리얼즈는 25일 연 1%대의 금리로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발행금액은 수요예측(사전청약) 때보다 1500억 원 늘어났다. 지난 17일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모집금액(1500억 원)보다 10배 가량 되는 1조 3600억 원어치 매수 주문이 쏟아지면서 발행액을 늘렸다.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금리가 연 2.827%(3년 만기)임을 고려하면 조달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채 시장 열기가 뜨겁다. 기업의 사전청약마다 잇달아 수조 원의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24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주 기업들 회사채 시장에서 1조7000억 원 가량을 순발행했다. 기관 수요예측 자금도 3조 원에 달했다. 이번 주(22일~28일)만기도 래 물량 2조7000억 원의 차환 물량과 금리 상승 걱정 때문 선발행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LG화학은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예측한 결과 총 2조5600

억 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 2배로 늘려 자금을 조달했다. LG화학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투자 및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초 3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2조 원이 넘게 몰려 발행액을 4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아도 3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결산 공시를 앞두고 있음에도 회사채 수요예측이 활발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기대 등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이 기업들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로 인한 금리 상승은 발행 강세를 상쇄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시장 분위기도 좋다. 최근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흥행한 데는 발행사(공급)와 투자자(수요)의 ‘입맛’이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채 금리 상승(인플레이션 우려)이 지속되면 조달 비용이 걱정이다. 장기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도 걱정이다. 손영지 기자 eom@

주식하고 싶다면? 투자 더 잘하고 싶다면?!

신한알파

미도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부터 시알고리즘 투자정보 제공
국내 최초 해외주식 소수점 서비스까지 앱 하나로!

•전속모델·배우전미도

상담전화 | 1588-0365
홈페이지 | www.shinhaninvest.com

◀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주식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9%(거래금액, 매체별 차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4318호 (2020-09-14 ~ 2021-09-13)

파월 “제로금리 유지” 한마디에 금리상승에 동요하던 시장 안정



제롬 파월(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동요하던 시장을 안정시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가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달성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할 때까지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가계의 상품 소비와 달리

서비스 지출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고용시장 개선 속도가 둔화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수백만의 미국인이 여전히 실업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축했다. 백신 접종 속도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억눌린 소비 폭발 전망에 최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파월은 “국채 금리 급등이 경제 전망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매입 자산을 현재 속도로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나 전기차 '화재조사' 진행 중 소비자 보호 현대차 8만대 리콜

〈국내외 코나·아이오닉·일렉시티〉

현대자동차가 잇단 화재로 논란이 된 코나 전기차(EV) 등 3개 차종 8만여 대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교통부가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인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다. 리콜로 발생할 비용은 약 1조 원에 달하는데, 비용 부담을 놓고 현대차와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제작해 판매한 코나 EV와 아이오닉 EV, 전기버스 일렉시티 등 3개 차종 2만6699대를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남

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리콜로 수거된 고전압 배터리를 정밀히 조사해왔다. 아직 KATRI의 결합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BMS 업데이트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일부 배터리를 완전히 골라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존 고전압 배터리시스템을 개선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로 발생할 비용은 1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부담률 등을 반영해 최종 품질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 비용은 2020년도 4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품질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 당사 품질에 대한 고객의 신뢰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건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비용 부담 비율이다. 화재 원인이

배터리 불량으로 밝혀지면 LG에너지솔루션의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부담금 결정을 둘러싼 양사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리콜의 사유로 언급된 배터리 셀 내부 정렬 불량은 국토부 발표대로 재현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당사가 제안한 급속충전 로직을 현대차에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했고,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추가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현대차와 함께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국내		해외	
2만5083	코나 EV	5만597	
1314	아이오닉 EV	4402	
302	일렉시티	3	
2만6699		5만5002	
		※출처: 현대차	

국토부 '배터리 셀 제조불량 원인 가능성' 내달 29일부터 배터리시스템 모두 교체 LG에너지솔루션과 1조 비용분담 진통 예상

경공장에서 초기 생산(2017년 9월~2019년 7월)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음극탭 접힘)으로 인한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차는 3월 29일부터 고전압 배터리시스템(BSA)을 모두 교체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은 국내에서 코나 EV 2만5083대, 아이오닉 EV 1314대, 일렉시티 302대 등 총 2만6699대다.

해외에서는 코나 EV 5만597대, 아이오닉 EV 4402대, 일렉시티 3대 등 총 5만5002대로, 세계 전체로 따지면 8만1701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내주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차례로 리콜에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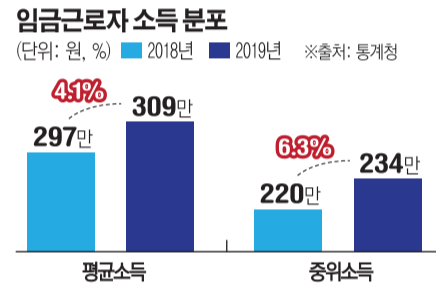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16일 한 차례 시정조치를 받은 코나 전기차에



'더현대 서울' 내일 그랜드 오픈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에 프리 오픈한 '더현대 서울'을 찾는 시민들이 백화점을 둘러보고 있다. 26일 정식 개점하는 '더현대 서울'은 전체 영업면적이 8만9100㎡(약 2만7000평)로, 서울에 있는 백화점 중 최대 규모다. 이 백화점의 콘셉트는 '자연친화형 미래 백화점'으로 전체 영업면적 가운데 49%가 실내 조경과 고객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中소 임금 月245만원...대기업 절반도 안돼

2019년 근로자 월소득 309만원 기업 BSI 차이 이달 24P '최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심리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제조업 중 대기업 업황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대비 2포인트 오른 93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7월(97)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반면, 중소기업 업황실적 BSI는 9포인트 떨어진 69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9월(58) 이후 최저치며, 작년 3월(-12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리차는 24포인트 벌어졌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직전 최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5월 23일이었다.

김대진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원자재값 급등 영향이 컸다"며 "중소기업은 하청업체가 대부분이고 영업기반과 시장 지배력이 취약하다. 원자재값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심리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자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515만 원으로 전년보다 14만 원(2.9%) 올랐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14만 원(6.1%) 증가한 245만 원에 그쳤다. 대·중소기업 직원 월평균 소득 차이는 270만 원으로 중소기업 직원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셈이다. 19세 이하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차이가 벌어지면서 50대는 대기업 평균소득이 중소기업의 약 2.6배에 달했다. 2019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은 309만 원이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청년 10명 중 6명 사실상 구직 포기

24%만 "적극적 구직 활동"

최근 청년 취업 시장 '한파'에 청년 10명 중 6명은 사실상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24%였다고

24일 밝혔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7.4%였고, '거의 안 하거나 그냥 쉬고 있다'는 답도 23.7%에 달했다. 올해 내 취업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57.1%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일자리가 감소한 이유를 묻는 말에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라는 답이 64.1%가 가장 높았다. 자동화나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응답은

25.8%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도 8.8%였다.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77.8%가 '신중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지만, '참여해 봤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신청했으나 떨어졌다'라는 응답도 15.8%였다.

청년들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경력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를 찾기 어려워'(27.5%)나 '취업에 집중하려고'(26.9%)도 신청을 안 한 이유로 꼽혔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개인 진료·투약정보 '앱'으로 관리

'마이 헬스웨이' 도입... '건강기록 앱' 서비스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의 진료·투약기록을 조회하고, 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윤건호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과 '나의 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동의를 전제로 원하는 대상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수집대상은 의료·생활습관·체력·시기 등 개인 건강정보이며,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식별체계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그간

우리 국민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날부터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서비스한다. 이용자는 앱을 활용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이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이력(질병관리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건강정보를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업체 등에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 가능하다. 내년까지 공공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재갑 "코로나 여파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

인상 논의 앞서 '보험금 재정안정화 방안' 상반기에 마련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출입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고용보험료를 인상 논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확보해 고용보험기금 지출 여력이 충분한 만큼 당장 보험료율 인

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보험료 인상 논의에 앞서 올 상반기에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안에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전입금 확보, 불필요한 기금 지출 사업 정리,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방지 개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안에 담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 안전보호장치 시



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산업재해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 판단이다.

경영계에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Powered by Innovation

세계 최초의 건설현장 무인 관제 솔루션, 우리의 혁신이 만듭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최초의
건설현장 무인 관제 솔루션 Concept-X
이제 다음 혁신을 향해 움직일 차례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전 세계 건설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3D 지형 스캐닝



무인 굴착기



자율 작업 시스템



5G 원격제어

무인 휠로더

고장 예측 시스템

무인·자동화 기술 기반의 건설현장 종합 관제 솔루션 Concept-X
드론으로 지형을 스캐닝하여 측량하고 작업현장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해 계획하여 관리하는 미래 건설현장 무인 관제 솔루션

가덕도 예타 면제... 'MB때 4대강 사업' 닳은꼴

4대강 사업도 22조 예타 면제해 부실 논란 '판박이' 부처 문제 제기에도 선거의식해 밀어붙이는 정치권

정부 부처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법적 절차, 부지선정, 대규모 사업비 등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내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예초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온 이유는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뚫대산에 추락한 것이 계기였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6년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존 공항의 활주로를 개선하는 방식의 김해신공항을 확정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한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부산광역시 발표한 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국제선 역할만 한다면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공항을 만들려는 목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사업비가 28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예산은 애초 13조 9000억 원에서 실제 22조 원을 초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도 4대강을 닳았다.

국토부는 월성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 19일 내놓은 가덕도 신공

항 특별법 관련 의견에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할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1989년 타당성 조사에서 2개 부지(영종도, 시화지구)를 검토해 1990년 영종도를 부지로 확정하고 1991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했다. 법무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서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고 기획재정부는 "공항산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예타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추후 입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정부 부처들의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유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申수석 사표 수리될 수도" 野 '사후 결재' 주장에 "대통령 인사패싱 아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흑독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애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신수석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 사의 파동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 수석이 불출석을 결정하면서 공세 대상이 유 실장으로 변경됐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수석 사의 파동과 관련해 "수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며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일단락됐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 수석이 사표를 고집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수리도, 반려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언론 발표 전에 대통령이 결재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

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언론에는 사후 결재해, 대통령도 패싱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되묻자 유 실장은 "언론 발표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통상 장관 임명인 경우 인사 확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이 끝난 후에 공식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유 실장은 결재의 의미를 '대통령 승인'으로 주장하는 반면, 정 의원과 원내대표는 결재를 '전자결재'로 이해한 것이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로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을 때는 오히려 국정농단, 과도한 인사개입 등의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입맛에 맞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 분란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힘내라 대한민국 #이겨내자 코로나1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궈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2월까지 연장

홍남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추진"

정부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 공제를 6월에서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문제 등을 논의했다.

홍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애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 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해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년 채용·창업 지원 확대·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와 여성 특화 직접일자리 마련·돌봄 지원 확대·유망분야 여성 진출 확대 방안 등을 여성가족부와 고용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뒤 3일 청년 고용대책, 4일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바이든, 韓·日·臺와 '핵심산업 공급동맹' 추진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중에 대응할 공급망 구축 나서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희토류 등 핵심 산업 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응할 공급망 구축 행정명령을 내놓는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닛케이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용 전지, 희토류, 의약품 등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소재들을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행정명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인한 공급망으로 연결된다"며 적대국의 제재나 재해 등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과 대만,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는 주요 기업이 있는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협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요 제



품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해 서로 생산 품목을 보완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응동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잉여 생산 능력과 비축품 확보도 협의의 대상이다.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대중국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잇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 있다. 포드는 주력 차량인 픽업트럭 F-150의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제품군도 생산량 감축을 피할 수 없다. 포드는 올해 1-2분기 자동차 생산량 감소로 올해

세전이익이 10억~25억 달러(약 2조 7740억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품귀로 인해 올해 글로벌 자동차산업 전체 매출은 약 6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지난해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은 12%로 품귀 현상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은 점유율 22%로 1위인 대만에 증산을 요구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과 희토류 공급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5%지만, 2030년이면 24%로 올라서

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점유율은 58%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은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의약품도 최대 90%를 대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제재 대상으로 의약품과 희토류를 정조준하면 미국으로서는 큰 위협이다.

닛케이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무역 규제를 통해 외교적 압력을 가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면 각국 정부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혜림 기자 rog@

"100% 재활용 제품생산 목표" 친환경에 쫓힌 쿡

애플 주총서 '탄소제로' 의지 강조



팀 쿡(사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3일(현지시간) 열린 온라인 주주총회에서 친환경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쿡

CEO는 이날 향후 모든 제품을 재활용 소재만을 사용해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애플은 이미 출시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의 제품에서 일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제조해 왔다. 이런 과감한 구상은 원자재의 채굴이나 정제 등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한편, 개발도상국 광산 등에서의 아동 노동 문제에도 대처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쿡 CEO는 이날 재활용 재료로의 전면 이행에 대해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말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회사 내부에서 싹트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하나의 큰 목표는 언젠가 지구로부터 아무것도 뽑지 않고 모든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의 친환경 노력은 계속돼왔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전 세계 협력업체들과 함께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고 선언했다. 자사 제품과 전 세계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흡수 활동 등 상충하는 조처로 실질적인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아울러 쿡 CEO는 "애플이 지난 6년 동안 거의 100곳에 달하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3~4주에 1개꼴로 기업을 인수한 셈이다. 그는 이처럼 적극적인 인수에 나선 이유에 대해 "기술 및 인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애플 주주들은 쿡 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가결했다. 여기에는 쿡 CEO가 특정 경영 목표 달성하면 주기로 약속한 100만 주 상당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포함됐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이에 대해 "주주들이 쿡 CEO와 현재 경영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머스크 '자충수' ... 테슬라 주가 비튼 비트코인

비트코인 전도사로 나섰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행동이 도리어 자사 주가를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킬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역시 맞물려 요동치는 상황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날 5만 8000달러를 돌파하며 기세등등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순식간에 5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테슬라 주가 역시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 급락한

698.84달러에 마감했다. 장 초반 13% 폭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줄였다. 여전히 700달러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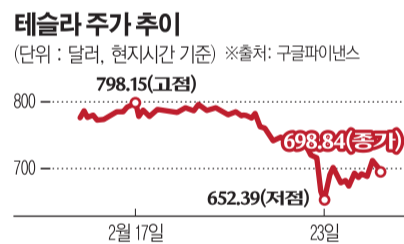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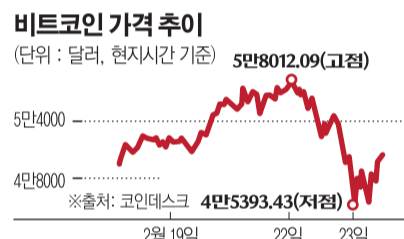
테슬라는 이날 초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머스크 CEO가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다. 비트코인을 8년 전에 샀어야 했다"며 비트코인 투자를 부추기는 발언을 더 했다. 당시 4만 5000달러 선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발언 이후 5만 20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만 비트코인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부담을 느낀 듯 머스크는 지난 주말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고 이는 비트코인 급락으로 이어진 악재로 작용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다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매우 큰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고 있다"며 "테슬라가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전기자동차의 비전을 가릴 위험도 감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비트코인 높아 보여" 한마디에 5만 달러 붕괴...자사株도 폭락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COVER STORY
다시 쓰는 이력서

PART 1 2020 통계로 보는 중장년 구직
PART 2 재취업의 시작, 이력서
PART 3 면접관의 눈길을 끄는 '말말말'
PART 4職과 業을 만드는 시니어
PART 5 30년 경력 판매하는 재능마켓
PART 6 해외의 시니어 일자리

신라보가 만난 사람

"세생트리오 시절보다
지금도 훨씬 행복해요"
가수 권성희의 일과 삶

느린 여행

삼척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
'정리함 그리go'
작은 미술관

전등 정원희의
담박한 정자 하나로
할 말 다하는 원림

한 걸음 더 들어가 구축한 '개그의 제국'
개그맨 전유성

햇살레이스
그때 그 시절,
양갱의 화려한 부활

하우징+
우리 아파트 하자,
수리할까?
소송할까?

감성 솔솔! 미술관 여기
바로 수려한
숲속의 미술관

습기로운 연금생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의 모든 것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재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SK)

‘초격차’ 내건 삼성전자 데이터 전성시대 SSD 쟁탈전 ‘도전장’ 던진 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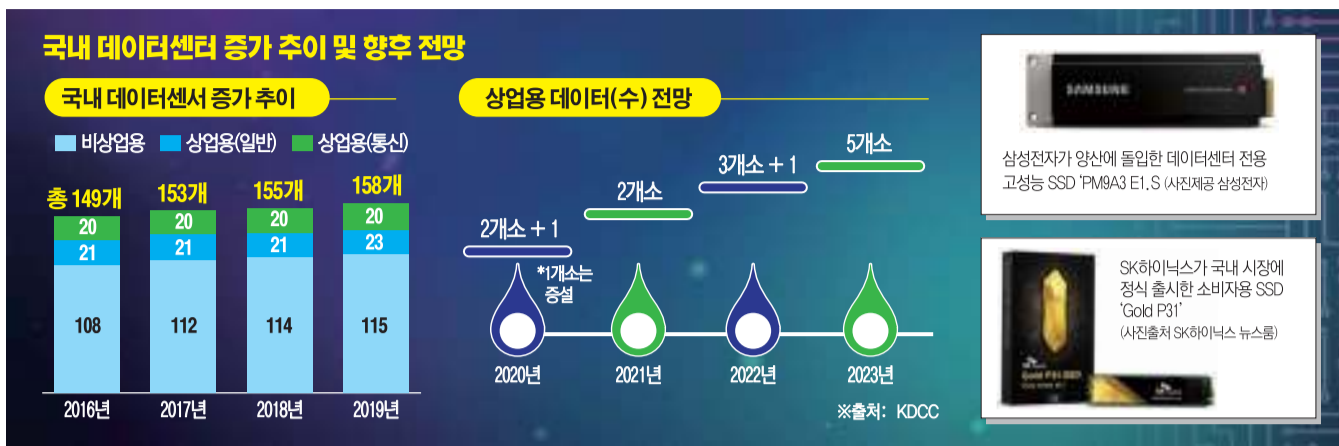
삼성, 6세대 V낸드 기반 양산 돌입 전력 사용량 줄고 탄소 저감 효과

SK,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등 데이터센터 맞춤 제품 공급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시장 경쟁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SSD는 기존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대체하는 저장장치다. 특히 ‘기업용 SSD’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MS 등이 가동하는 데이터센터 서버의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OCP(Open Compute Project)의 규격을 만족하는 데이터센터 전용 고성능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를 양산한다고 24일 밝혔다. OCP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정립하는 기구다.

이번 제품 ‘PM9A3 E1.S’는 업계 최초 6세대 V낸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전용 SSD다. 특히 전력 효율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는 탄소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PM9A3 E1.S의 전력 효율은 연속쓰기 성능을 기준으로 할 때 1와트(W)당 283 MB/s를 지원하며, 이는 이전 세대인 5세대 V낸드 기반 PM983a M.2 보다 약

50% 향상됐다.

지난해 전 세계 서버용으로 출하된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모두 PM9A3 E1.S 4TB로 대체하면 1년간 절감할 수 있는 전력량이 1484GWh에 이른다. 이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한 달간 서울시 주택용 소비 전력량보다 크다.

PM9A3 E1.S의 연속쓰기 속도는 3000MB/s로 이전 세대인 제품 대비 연속 쓰기 속도가 약 2배 향상됐으며, 임의 읽기 속도(750K IOPS)와 임의쓰기 속

도(160K IOPS)도 각각 40%, 150% 향상됐다.

페이스북의 OCP SSD 총괄 로스 스텐포트는 “삼성전자의 이번 제품은 대규모 확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환경에 적합한 SSD 요구 사양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발표하는 등 SSD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 시장에서 7.1% 점유율로 5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위 인텔(29.6%)의 점유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36.7%에 달해 1위인 삼성전자를 넘어선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데이터센터용 SSD는 애초 계획을 넘어 전년 대비 매출이 6배 증가했다.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해 향후 매출 성장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는 게 SK하이닉스 측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모바일, 클라이언트, 서버 등 다양한 시장으로 SSD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주요 클라우드 및 인터넷 서비스 회사 20곳이 보유한 전 세계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수는 작년 기준 597개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2000년 53개에서 2019년 158개로 매년 5.9%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업용 데이터센터는 연평균 7.4% 증가해 43개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사업용 데이터센터는 12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 ‘벤 다이어친’ CTO 영입 UAM 기체·핵심기술 개발 시너지

현대자동차그룹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부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체 개발 및 선행 연구개발 업무를 이끌 최고기술 책임자(CTO)로 ‘벤 다이어친(Ben Diachun·사진)’을 영입했다.

세계 최초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쉽원’ 개발에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이다. 24일 현대자동차그룹은 “벤 다이어친(사진) CTO는 20여 년 동안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경험을 갖춘 인재”라며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쉽원(SpaceShipOne)을 포함해 16대의 획기적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벤 다이어친 CTO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항공우주 산업 스타트업 오픈너(Opener)에서 최고경영자로 활약한 바 있다. 혁신적인 항공기와 우주선을 개발 및 제조하는 ‘스케일드 콤포지트(Scaled Composites)’에서는 최고경영자 및 고위 기술직을 역임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벤 다이어친 최고기술 책임자 영입으로 기체 개발 및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8년까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글로벌 안방 TV, 2대 중 1대는 ‘韓제품’

삼성, 점유율 31.9% ‘역대 최대’ QLED·초대형 제품 전략 주요 LG, 올레드 年200만대 첫 돌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펜트업(억눌린) 수요’ 효과를 톡톡히 누린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LG전자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점유율 기록을 세웠고, LG전자의 주력 제품인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도 출하량이 처음으로 연간 200만 대를 넘어섰다.

24일 양사와 시장조사업체 오픈디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TV 출하량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재작년보다 소폭 성장한 2억2535만여 대를 기록했다. 4분기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성수기 효과로 역대 분기 출하량 가운데 최대인 7024만2000여 대를 기록했다.

이 시기 국내 TV 제조사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삼성전자는 4분기 금액 기준 31.8%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는 역대 최고 점유율인 31.9%를 달



삼성전자 모델들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삼성 TV의 15년 연속 1위 달성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성했다. LG전자 금액 기준 연간 점유율 16.5%로 2위를 차지했다. 일본 소니(9.1%), 중국 TCL(7.4%)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점유율을 합치면 48.4%로, 작년 한 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판매된 TV 판매 금액 중 절반은 한국산이었던 셈이다.

삼성전자는 QLED와 초대형 TV에 집중했다. QLED TV는 2017년에 80만대를 판매한 이후, 2018년 260만대, 2019년 532만 대로 지속해서 판매량을 늘려왔고, 작년에는 779만 대를 팔았다.

QLED TV 판매 확대에 따라 2020년 삼성전자 전체 TV 매출액 중 QLED가 차지하는 비중도 35.5%까지

늘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2500달러 이상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금액 기준 45.4%의 점유율로 선두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LG 올레드 TV를 4분기에만 86만4000여 대를 출하하며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고, 연간으로 보면 전년 대비 23.8%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LG 올레드 TV의 평균판매단가(ASP)가 2000달러에 가까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성장세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LG전자는 올해 올레드 TV 시장이 지난해 대비 최대 2배까지 성장하는 올레드 대세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통합 강조한 손경식 경총 회장 “세계 싱크탱크 만들어 현안 해결”

손경식(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훈 호텔에서 열린 제52회 정기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경제단체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통합과 관련해)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이 통합해 힘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가가 잘 나가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간경제단체)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전 경련에 통합을 제의했지만 현재는 통합을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는 사실상 거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총은 신임 상근부회장에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이상근 부회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발을 맞추며 반기업법 폐지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 상근 부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역임하며 경제계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이바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화시스템, 미래차 민관 협력

한화시스템이 미래형 도심 자동차(PAV) 분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탠다. 24일 한화시스템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식에서 진행된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얼라이언스’ 발족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얼라이언스는 PAV 분야에서 탄소 소재 융복합산업 증진을 목적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대한항공, 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등 탄소소재 수요·공급 기업과 유관기관 총 11개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탄소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kdy@

“경영 분쟁 통감”... 조현식 한국엔컴퍼니 대표 사의

“사외이사 선임 후 사임할 것”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 조현식(사진) 대표이사가 24일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한국엔컴퍼니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하는 주주 서한을 공개했다. 조대표는 이한상 교수를 한국엔컴퍼니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주 서한에서 조대표는 지난해 불거진 핵심 경영진과 대주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인 회사의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이번 주주 제안 취지를 밝혔다. 조

대표가 추천한 이한상 교수는 기업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국내 정상급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조대표는 이한상 교수가 한국엔컴퍼니에 대한 기존 세간의 부정적 평가를 일소하고 탄탄한 기업 거버넌스 위에서 진정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임자라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최근 경영권 관련 문제로 인해 창업주 후손이자 회사의 대주주들이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추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조대표는 회사의 명성에 누

가 될 수 있는 경영권 분쟁 논란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고자 사임 의사를 밝힌다고 설명했다. 더욱 일사불란하고 기민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책임경영에 더욱 힘을 싣고, 유능한 임직원들이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이한상 교수와 같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빠르고 정확한 리스크 관리와 기업 거버넌스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회사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대표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로써 경영권 분쟁 논란도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GS ‘친환경협약체’ 공식 출범

GS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4일 GS는 서울 강남구 GSE타워에서 ‘친환경협약체’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협약체는 각 계열사 최고환경책임자(CGO)들로 구성됐다.

협약체는 ESG 경영, 친환경 신사업 추진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사회공헌, 동반성장, 지속가능경영, 안전·보건·환경, 친환경 신사업 추진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협약체 안에는 △ESG 분과 △안전·보건·환경 분과 △친환경 신사업 분과가 설치된다. 김대영 기자 kdy@

신한銀 “제재심 늦춰 달라”... “결과 안 달라진다” 금감원

라임 징계 氣싸움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수락해 제재심 위원들에게 ‘소비자 구제 노력’을 어필하기 위해 제재심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연기 요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초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을 25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제재심 날짜를 분쟁조정위원회 이후로 연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일정이 미뤄

라임펀드 판매사 조치 일정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신한은행	2월 25일 진옥동 행정 '문책경고'	최소 한 달 이후
우리은행	2월 25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직무정지'	2월 23일(기본 55% 배상 권고)

당국 오늘 제재심 강행 방침에 신한銀 “구제 노력 못 밝혀 억울” 분쟁조정위 개최 최소 한달 예상

지다 보니 제재심 일정보다 늦게 잡혀 제재심을 먼저 하게 됐다”며 “(소비자 구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재심보다 먼저 개최되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여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상고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재심에서

제재수위 감경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다. 같은 날 제재심이 개최되는 우리은행은 전날(23일)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수락했고, 금감원 소비처는 제재심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사실 금감원에서도 신한은행의 제재심 날짜와 분쟁조정위원회 날짜의 간극을 두고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고민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제재심 날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차피 신한은행의 분조위 결과는 소비자보호 구제 노력으로 판단되지 않아, 제재심 결과에 영향이 미

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준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검사 후 제재심 날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4~5개월가량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삼자대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전망이다. 25일 제재심이 한차례 연기된다 해도 분조위 이후로 미뤄지기엔 어렵게 됐다.

금감원 소비처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락 여부와 자체 피해구제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평가한다. 소비처는 신한은행이 분조위 수락이 아니더라도 자체 피해구제 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 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했다.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원금의 51% 수준을 보상한 것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선지급 방식은 다소 다르다. 투자자산 자체의 손실로 회수 예상액을 51%라고 적용했고, 선 보상 안에는 은행의 책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선 보상 배상비율에는 은행의 책임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 또한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은성수 ‘코로나 대출 회의’ 지방銀 패싱 논란

금융 인사이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달 3차례에 걸쳐 금융권 수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주일에 걸쳐 5대 금융지주 회장(16일)과 정책금융기관장(19일) 금융협회장(22일)과 비공개 회담을 열고 금융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은 코로나19 금융지원과 연착륙 방안이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그 결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 대출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만남에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은행이 배제됐다.

코로나19 대출에서 지방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하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은 60%다. 시중은행(45%)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 오히려 더 높다. 때문에 재정지원과 지방주력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같은 특별예산 편성 같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은행의 이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소상공·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금융권 수장들과 릴레이 간담회 中 小 中 大 대출비중 큰 지방은행 배제

은성수 위원장이 코로나19 지원을 독려하는 자리에 지방은행이 빠진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지방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및 자금흐름의 애로를 감안한 ‘지방은행 발전방향’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지방은행들은 직접적인 제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8월,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취임 후 지방은행의 견수령 한 적었지만, 그 이후에 다른 논의나 회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번에는 빠졌지만, 때가 되면 부르지 않겠나”라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 ‘패싱’이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최근 지방은행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더 씩씩하게 느껴졌다는 후문이다.

지방은행의 경쟁력 약화는 코로나 19,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인한 구조적

인 문제로 꼽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금융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보다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지방은행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지방은행의 순이익은 크게 하락했다. 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최대 순이익을 갈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방은행의 경영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 자구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도 수반돼야 의미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행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부산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0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 경남은행은 1646억 원으로 전년보다 9.4% 감소했다. 대구은행(2383억 원)과 광주은행은(1692억 원)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보다 각각 15.6%, 7.5% 줄었다. 제주은행의 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37.3% 급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인 무담보 대출

네이버파이낸셜·우리銀 업무협약

네이버파이낸셜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SME)에게 ‘대출 사다리’를 제공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권광석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사의 기술과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양사는 우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SME를 위한 대출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SME들은 담보나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 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워 대부분 제 2금융권의 대출이나 고금리 대출 서비스를 받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SME를 대상으로 제 1금융권 최초의 담보 없는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우리은행과의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 SME를 위한 ‘대출 사다리’를 마련하게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출시한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금융이력이 없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한 권광석(오른쪽) 우리은행장과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선파일러 사업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SME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등 주요 소상공인협회들과 ‘포용적 금융 협약’을 체결하는 등 SME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 등 IT 기술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로 SME의 성장을 지원한 네이버파이낸셜과 앞으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주목된다.

향후 양사는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금감원, 우리·기업銀에 라임 손실 최대 80% 배상 권고

기본배상률 55%·50%에 가산 은행권 첫 ‘사후정산’ 방식 조정 2989억 피해구제 일단락 기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불안전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객·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가장 처음으로 이

에 동의했으며, 분쟁 조정 규모는 각각 2703억 원(1348계좌), 286억 원(242계좌)이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객·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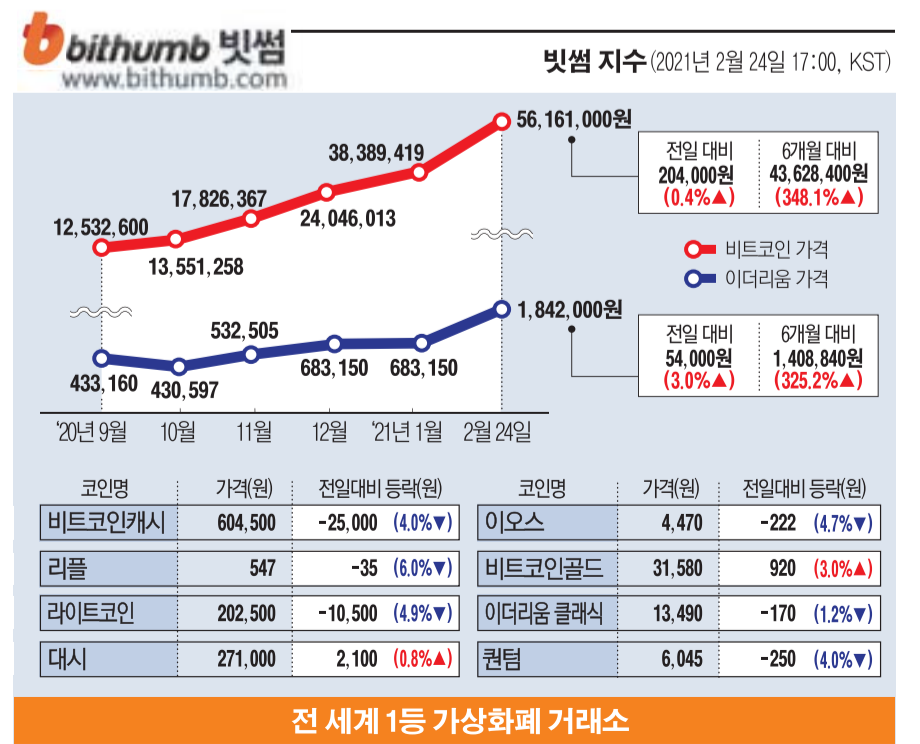
분쟁 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가 이 조정은 성립된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모두 50%대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손해배상비율의 산정 기준을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현재 검찰에서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기본배상비율은 60%이며,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은행 고객의 보수적 투자 성향을 고려해 증권사보다 높은 배상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금감원의 결정은 금융권의 관측을 뒤집었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 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갤S21 단돈 1만원”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활개



이통사, 단통법 개정 이전 유치
월말·2월 교체 수요 겹쳐 들쭉
불법지원금 최대 53만원 살포
방통위 “시장 과열 판단 일러”

예년 대비 잠잠한 것으로 보였던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보조금 확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뽕뽕 등 휴대

폰 구매 정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21(사진)을 단돈 1만 원에 샀다는 등 후기가 지난 주말 사이 대거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성지’라고 불리는 구매처를 공유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휴대폰 단가표를 같이 올린다.

최신 스마트폰을 소비자들이 이만큼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그만큼 늘렸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은 불법이다.

이달 22일 기준 한 이통사 대리점 단가표에 따르면 갤럭시S 21을 살 때 이 통신사의 최고 요금제를 쓴다고 전제하고 번호 이동과 선택약정을 하면 지원금을 61만 원

받는다. 61만 원 모두를 구매자에게 지원해도 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여기서 일정 부분을 챙겨도 된다. 현재 갤럭시S 21의 공시지원금은 3사 모두 최대 50만 원으로 50만 원의 15%인 7만5000원만 합법적인 지원금이다. 즉 구매자에게 61만 원을 모두 준다고 가정하면 불법지원금을 53만5000원 쓰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직 ‘시장 과열’로 보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대란이 일어나는 것과 일부 대리점 위주로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는 것은 다른데 ‘대란’까진 아니라고 본다”며 “불법 보조금 행위를 기본적으로 단속하지만, 곳곳에서 터지는 것은 모두 모니터링하긴 힘들다”고 했다.

예년보다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잦아들었는데도 근래 다시 시장이 들쭉이는 배경으로는 ‘월말’이라는 이유와 2월까지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은 월마다 판매 목표를 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대리점에서 출혈을 감수하는 때도 있어 모니터링 시 이를 주시하고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 업계 대목은 통상 12월부터 2월까지이다. 이 기간엔 연말 특수에 더해 졸업식, 세뱃돈 등으로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1분기 실적은 이통사들이 나머지 분기의 실적을 수정할 지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겨곤 한다.

이통 업계에서는 3월 개정안이 마련되는 분리공시제 영향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3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가 이통사에 타격이 될지 수혜를 줄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이통사들은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 최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현재에 가입자를 더 끌어모으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최대한 가입자를 모아 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임병훈 “AI·상생·글로벌화 기반으로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협 새 회장 취임

매출 1000억 기업 1000개 육성
제조 빅데이터 공유 협업 구축

임병훈 텔스타홀딩 대표가 제10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 신임 회장은 이노비즈 기업 20년을 맞아 제조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노비즈협회는 2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노비즈협회 제9대·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 회장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도 좋은 탄력성을 보인다”며 “이노비즈협회가 제조업과 제조 혁신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으로 임 회장은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표어로 이노비즈협회를 이끌 계획이다. 매출 1000억 원 기업 1000개 육성과 일자리 100만 개 달성에도 나선다. 업종별·지역특화별 산업 기반 가치사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노비즈기업 간 제조 빅데이터를 공



임병훈(텔스타홀딩 대표) 신임 이노비즈협회장이 24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비전을 밝히고 있다.

유해 실시간 생산 협업체계도 만든다.

이를 위해 이노비즈협회는 AI 전환·상생 협업·글로벌화란 3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이노비즈 상생 협업 추진 △이노비즈 성장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수출 패러다임 전환 선도기관이라는 스마트(SMART) 5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이노비즈 기업이 제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기업 집중 육성과 제조업의 제조서비스업화 지원 등에 나선다.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동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기업 간 상생 협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도 앞장선다.

아울러 이노비즈 기업이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ABC(AI·빅데이터·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정책 정보 매칭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스케일업 관점에서 이노비즈제도도 개편한다. 성장성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평가 기준도 개선하는 등 제도와 평가지표 개편을 연구한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도 만든다.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재배치도 지원하며,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노비즈 글로벌화 모델 확산에도 힘쓴다. 국내 수출 제조 공장도 동일한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해외에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기반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대응 지원도 이어간다.

임 회장은 “이노비즈 기업이 제조 중소기업 정책의 실행 중심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쌍용양회 사명 ‘쌍용C&E’로
“종합환경기업 새 출발”

쌍용양회가 ‘쌍용C&E’로 사명을 변경한다. 시멘트 제조업을 의미하는 ‘양회공업’ 대신, 환경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이름이다.

쌍용양회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명인 쌍용C&E를 승인받은 후 공식 선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기 주총은 3월 25일 열린다.

새로운 사명인 쌍용C&E는 시멘트(Cement)와 환경(Environment)의 앞글자를 한 자씩 따 만들어졌다. 시멘트 대표 기업으로서 이어온 기업 정체성인 ‘쌍용’을 더했다. 미래 핵심 산업인 환경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쌍용양회는 최근 5년간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 등에 투자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 사업목적에 다수의 환경 관련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은 “살기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중소·벤처 15%만 “탄소중립성 준비” 창업 두 자릿수 증가? 사실상 ‘착시효과’

10곳 중 8곳 중요성 공감… “용자·보조금 확대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탄소중립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착 제대로 준비를 시작한 기업은 1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KOSME 이슈포커스’를 24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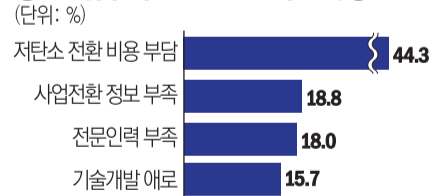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3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반면 절반 이상(56.1%)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비가 돼(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1%에 불과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학공업과 금속의 경우 준비가 되어(있거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7%, 9.5%로 전체 평균 대비 탄소중립 준비 수준이 저조했다.

중소벤처기업탄소중립대응방안으로 ‘저탄소·친환경 기술·제품사업화(43.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저탄

중소기업 저탄소 전환 애로사항



※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친환경 공정개선과 설비도입(29.4%)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다.

저탄소 전환시 애로사항으로는 ‘공정개선·설비도입 비용부담(44.3%)’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용자와 보조금을 결합한 방식(45.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저탄소·친환경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용자, 시설보조금)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녹색경영수준 진단 시스템을 통해 ESG 관점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정책자금, 기술, 판로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 지원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부동산업 의무등록 빼면 4% ↑
중기부, 실적 부풀리기 도마위

지난해 신규 창업기업 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부동산업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붐’ 근거로 제시한 경제지표가 사실상 통계적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소기업부는 ‘2020년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창업기업이 148만4668개로 전년(128만5259개사) 대비 15.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부동산 창업기업이 43만7853개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신규창업기업 수는 104만6814개사로 전년 대비 4.1%, 한 자릿수 증가에 불과하다.

부동산업은 전년(27만9797개사)보다 56.5% 급증했다. 부동산 창업 급증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가 영향을 미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부동산업(56.5%)을 제외하면 도·소매가 39만555개사(17.0%), 숙박·음식점 16만6548개사(10.0%), 개인 서비스 5만3962개사(4.7%), 기술창업 22만8948개사(3.8%)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정부는 코로나 19에도 신규창업기업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창업 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모험과 혁신’으로 대변되는 기술창업(22만8948개사)의 경우 3% 증가에 머물러 역대급 예산을 배정한 창업 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창업 중에서도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으로 수혜를 본 정보통신(21.2%), 과학기술(17.2%) 등을 제외하면 △제조업(-4.6%) △교육(-8.9%) △보건의료(-10.6%) △창작·예술·여가(-3.5%)는 모두 감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동산업을 제외해도 신규창업기업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정책도 함께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유진기업 ‘품질경영’ 선언
“고객만족·친환경 최우선”

유진그룹 모회사 유진기업이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품질선언문을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진기업은 △고객만족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 △고객요구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 △끊임없는 연구개발 추진 △안전, 친환경 등 건강한 건설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담긴 품질선언문을 발표했다.

유진기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 원칙, 품질 확보 최우선화 △관행에 대한 반성 △품질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 △품질관리자 역량 배양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품질선언을 계기로 유진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현장 품질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의 수준 높은 요구에 눈높이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에이스 · 빈츠 ... 장수 과자들의 이유있는 '회춘'

장수 과자 브랜드들이 '회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장수 브랜드가 유난히 많은 제과업계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젊은층의 선호도를 빠르게 파악해 젊은 브랜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 오랜 세월 쌓은 인지도를 이어가는 방식을 통해 매출 신화를 새로 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해태제과는 크래커 '에이스'의 새로운 맛으로 '뉴욕치즈케이크'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에이스 크래커에 뉴욕 치즈케이크의 주원료인 크림치즈를 더했다. 에이스는 해태제과가 1974년 출시한 국내 최초 크래커 제품으로 올해로 출시 47년을 맞았다.

앞서 해태제과는 한정판으로 에이스 초코맛, 치즈맛, 에이스 샌드 등 맛이나 형태를 변형한 확장판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정식으로 젊은 층을 겨냥해 에이스 상시제

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신제품은 일상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즐겨 마시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젊은 에이스 버전'이다. 단맛을 살짝 살려 진한 치즈 맛을 살리고 소금은 절반으로 줄여 치즈케이크의 맛을 살렸다. 따뜻한 커피믹스에 잘 어울리는 오리지널에 이어 아메리카노 커피와 함께 즐기면 더 맛있는 새로운 에이스로 '뉴욕치즈케이크 맛'을 개발했다는 게 해태제과 측의 설명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50년 가까이 사랑받아온 에이스의 젊은 시도"라며, "2년이 넘는 연구개발로 아메리카노와 최적의 맛 조합을 찾아낸 만큼 세대를 뛰어넘는 커피 디저트 과자로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무 살을 갓 넘긴 롯데제과의 빈츠도 이날 '빈츠 카페모카'로 재탄생했다. 롯데제과가 빈츠의 변신을 시도하는 건 '빈츠



출시 47년 해태제과 '에이스' 아메리카노 즐기는 젊은층 공략 스무살 넘긴 롯데제과 '빈츠' 홈카페족 겨냥 카페모카 내바 트렌드 파악 젊은 브랜드 변신



호밀통밀맛' 이후 10년 만이다.

2000년 출시된 빈츠는 매년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초콜릿 과자류에서 빼빼로 다음으로 인기를 누리는 롯데제과의 효자상품이다. 지난해에는 매출 330억 원을 돌파하며 2019년보다 15%가량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다.

이번 신제품은 과자에 커피와 시나몬 향을 사용해 카페모카의 풍미를 내는 것이 특징으로, 과자 한 쪽 면에는 초콜릿이 코팅돼 있어 커피와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맛을 낸다.

롯데제과 역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늘어난 '홈카페족'을 겨냥해 이번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 족이 늘면서 커피와 함께 즐기기에 좋은 '빈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보고 달콤한 카페모카 맛을 살린 제품을 개발, 홈카페족 디저트를 확장시켰다.

'회춘' 활동에 가장 열심인 제과 업체는

단연 오리온이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티징' 형태로 신제품을 예고하면서 MZ세대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도 비결이다.

오리온이 꼬북칩을 재해석해 지난해 9월 선보인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은 품질 대란을 일으키며 메가 히트작 반열에 올라서기도 했다. 출시 50일 만에 350만 봉 판매를 돌파한 이후 두 달여간 판매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33억 원의 월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해 하반기 최고 히트상품으로 등극했다.

스테디셀러 '고래밥'을 초코맛 시리즈로 재해석한 '오!그래놀라 초코고래밥'도 출시했다. 출시 전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신제품을 예고하기도 했다. 오리온은 '초코송이'의 모자만 떼어 만든 초콜릿 '송이모자'와 초코송이의 하얀색 버전인 '하양송이'도 잇달아 출시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부림 캐머 건강 기원하세요 캠페인 현장 사진. 캠페인 참가자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각종 부럼류와 오곡밥 재료, 건나물 등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24일 서울 흥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 정월대보름 행사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플라스틱 해결 앞장"

'4R 전략'으로 친환경 동참

아모레퍼시픽은 재활용과 재사용이 쉬운 원료를 선택하고, 리필 가능한 제품 품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순환 경제 구축에 힘쓰겠다고 24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27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선정한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Recycle(포장재와 용기의 재활용성 향상) △Reduce(석유 기반의 플라스틱 사용 축소 및 불필요한 플라스틱 절감) △Reuse(플라스틱 용기의 재이용성 제고) △Reverse(화장품 용기의 회수율 및 재활용률 제고) 등 '4R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다 쓴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메탈프리(Metal-Free) 펌프를 적용하거나 쉽게 탈착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 제품들을 점차 늘리고 있다. 고갈 자원인 석유 원료 대신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도 확대하고 있다.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 유래 원료나 폐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해 제작한 용기를 사용 중이다.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리필 스테이션을 열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 리필 활성화 활동의 일환으로, 아모레스토어 광고에 있는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샴푸와 바디워



시 제품의 내용물을 원하는 만큼 소분해 판매한다. 지난해 10월 말 오픈한 이래 1000명 넘는 소비자가 리필 제품을 구매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리필 제품의 가짓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다 쓴 화장품 공병을 회수해 소각하지 않고, 용기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비율도 높여가고 있다. 매년 약 200톤가량의 화장품 용기를 그린사이클(GREENCYCLE) 캠페인을 통해 수거하는데,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 및 최근 MOU를 체결한 GS칼텍스 등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를 최소 100톤 이상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환경을 고려하고 업사이클링 가치를 담은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 '지구를 부탁해'도 선보였다. 해당 세트는 생분해가 가능한 사탕수수 원료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종이로 포장재를 구성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김혜지 기자 heyji@

편의점 'ESG 경영' 불꽃 튀는 1위 경쟁

업계 첫 A 등급 CU 먼저 웃어 GS25도 '無라벨'로 명예회복 컬래버 상품·배달서도 각축

편의점 업계 '1위'를 타이틀을 놓고 양강인 GS25와 CU가 올해 제대로 붙는다. 지난해까지 외형 판단의 기준인 '점포 수' 경쟁이 치열했다면, 올해는 'ESG 경영'과 '배달 플랫폼 확장' 등을 놓고 진검 승부를 벌인다.

연초부터 양사가 집중하는 영역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친환경 트렌드가 유통업계를 넘어 전 산업계로 확산하며 ESG 역량이 회사 평가의 지표가 되고 있어서다.

ESG 경영에서 먼저 웃은 건 BGF리테일이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가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업계 최초로 종합 'A' 등급을 받았다.

BGF리테일은 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24일 BGF그룹에 따르면 흥정국 BGF 대표와 이준준 BGF리테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ESG 경영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주주 가치 제고 등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을 수행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GS리테일도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GS리테일은 ESG경영

GS25 실적 및 점포 현황
(단위: 억 원) ※출처: GS리테일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점포수(추정)	1만3918개	1만4538개	620개
매출	6조8564	6조9715	1.7%
영업이익	2564%	2292%	-10.6%

CU 실적 및 점포 현황
(단위: 억 원) ※출처: BGF리테일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점포수(추정)	1만3877개	1만4923개	1046개
매출	5조9461	6조1813	4.0%
영업이익	1966%	1622%	-17.5%

강화의 일환으로 아오도어 기업비와이 엔블랙야크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사업 제휴 행보에 나섰다.

또 GS리테일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이날부터 무(無)라벨 페트병을 적용한 PB(자체상표) 생수를 선보였다. GS리테일은 가장 많이 팔리는 '유어스 DMZ맑은샘물 2L' 상품을 시작으로 무라벨 적용 대상 PB 상품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파트너와 손잡고 출시하는 컬래버 상품 경쟁도 뜨겁다. GS리테일이 최근 문구 기업 모나미와 손잡고 개발한 상품인 '유어스모나미매직스파클링'(이하 모나미매직스파클링) 2종이 대표적이다.

양사는 '모나미매직' 외형의 특징을 살린 음료 병을 자체 제작한 후 모나미매직의 고유 디자인을 음료 패키지에 그대로 적용했다. 두 번째 협업 상품인 향균면 3종은 25일 출시된다.

업계에선 GS리테일의 모나미매직

파클링 출시가 지난해 유통업계 히트상품인 CU의 '곰표 밀맥주'에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U가 대한제분과 손잡고 지난해 선보인 곰표 밀맥주는 150만 칸 이상 판매되며 히트 상품 반열에 올랐다. CU는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말 천연 화장품 스와니코코와 손잡고 곰표 화장품 3종까지 내놓으며 곰표 세계관 확장에 힘을 쏟았다.

배달 경쟁도 뜨겁다. CU는 18일 '카카오톡 주문하기'에 입점해 간편식과 음료 등 30여 개 카테고리 600여 개 상품을 제공한다. CU는 2019년 1월 주문 플랫폼 요기요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배달 서비스에 나선 바 있다.

GS25가 이미 카카오톡에 입점해 있어 CU의 카카오톡 입점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GS25는 지난해 5월 이미 카카오톡에 입점했으며, 이달 기준 입점 점포 수는 5100여 개에 달한다.

또 GS25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일반인 도보 플랫폼 우리동네딜리버리(우딜)이 자리를 잡으며 자체적인 근거리 배송 역량도 키우고 있다. GS리테일은 우딜의 일반인 배송원(우친) 수가 연내 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점포 수 경쟁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풀이하는가 하면, 실제 수도권에선 편의점 수가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계기로 근접 채널로서 편의점 위상이 더 높아지고 실제 지방에선 추가 수요가 꾸준해 당분간 출점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마트, 23년 만에 전 직급 희망퇴직 받는다

누적 적자에 구조조정 나서

롯데마트가 사원부터 부장까지 전 직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는 1998년 매장을 연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24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정직원 4500여 명 중 동일직급별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캐셔(계산원) 등 무기계약직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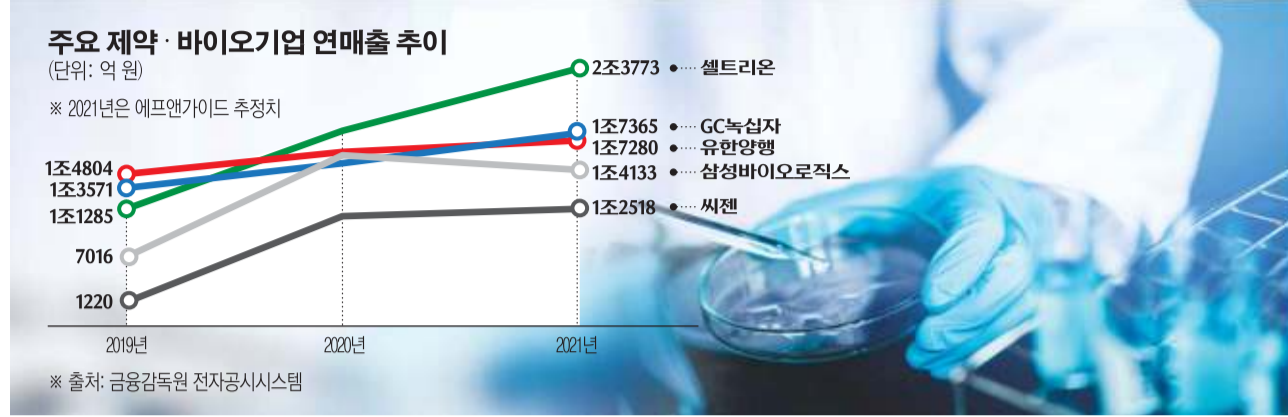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근속 연수별 최대 기본급 27개월분을 준다. 또, 대학생 자녀 1인당 학자금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이 같은 구조조정 작업은 적자 누적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마트는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660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올해도 부진 점포 정리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롯데마트뿐 아니라 롯데그룹 여러 계열사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받았던 롯데GRS는 연초 인력이 부족한 계열사로 일시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직원공유제(사회파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희망퇴직 소식을 알렸다. 대상은 차부장급 직원 전체, 고연차 과장급과 15년차 이상 일반사원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팬데믹 타고 몸집 불린 K바이오... '2조 클럽' 나온다

진단키트 씨젠·삼성바이오 등 매출 1조 돌파 상장사 10여 곳 작년 업계 1위 궤찬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로 '2조' 기대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K바이오는 더욱 몸집을 불렸다.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 속속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는 사상 처음 2조 원 고지를 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조 원을 넘긴 제약·바이오 상장사는 10여 곳에 이른다. 2014년 유한양행이 업계 최초로 '1조 클럽'에 가입한 지 6년 만의 성장세다.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은 달리는 K바이오에 재빨리 작용했다. 국산 진단키트가 세계 곳곳에 수출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며, 치료제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은 대호황을 맞이했다.

◇삼성바이오·씨젠, '1조 클럽' 입성=국내 대표 의약품 CMO 기업 삼성바이오로

직스는 2011년 창립 이후 9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은 1조1648억 원으로 2019년보다 66%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7억8000만 달러,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수했다. 이 가운데에는 일라이릴리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도 포함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치료제와 백신 임상을 위한 시료 생산을 타진했고, 생산 지역 다변화 정책을 통해 리스크 방어에 나서면서 거대한 CMO 설비를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급상승시켰다.

극적인 성장세를 보인 또다른 업체는 분자진단기업 씨젠이다. 2019년 매출액 1220억 원을 기록했던 씨젠은 1년만에

단숨에 1조 클럽에 합류했다. 매출액 1조1252억 원, 영업이익 6762억 원이란 화려한 성적표를 써내며 K진단키트의 위력을 증명했다.

씨젠은 지난해 1분기 818억 원, 2분기 2748억 원, 3분기 3269억 원, 4분기 4417억 원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다. 코로나19 3차 유행은 찾아들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잇따른 등장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인수합병(M&A) 총괄 임원 등 전문 인력을 영입한 씨젠은 올해 본격적인 사업 확대와 다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사상 첫 '2조 클럽'?=셀트리온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하며 업계 1위로 뛰어올랐다. 1조 클럽 가입 1년 만의 '현기증 나는' 성과다.

2020년 매출액은 1조84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9% 늘었다. 정맥주사제형의 인플릭시맙을 세계 최초로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꾼 바이오배터 '렘시마SC'를 유럽 시장에 출시했고, 미국 시장에서 주력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영향력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업계는 셀트리온이 달성할 또다른 신 기록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액 추정치(컨센서스)는 2조3773억 원이다. 이를 충족시킨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2조 원을 넘기는 기업이 된다.

셀트리온은 올해 성장세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특히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에 기대가 크다. 렉키로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는 글로벌 진출에 대비해 올해 렉키로나를 국내 수요를 훌쩍 넘는 150만~300만 명분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쟁 제품의 등장으로 주력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정체가 올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세계 최대 리톡시맙 시장인 미국에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리아브니'(아젠)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트룩시마'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이처럼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셀트리온은 신제품 확대에 타계책을 찾을 계획이다. 렘시마SC에 이어 최근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유럽 허가를 획득했다. 후발주자지만 고농도란 차별점을 무기로 시장에 침투한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렉키로나의 글로벌 공급 노력과 유플라이마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신규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 웃고... 한미약품·대웅제약 울고 '제약 빅5' 실적 코로나에 희비 갈렸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난해 뚜렷한 실적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해 사상 최고 실적을 낸 곳이 있는 반면,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부진한 실적을 받아들여 희비가 교차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약업계 매출 상위 5대 제약사로 꼽히는 유한양행과 GC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이 지난해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이미 '1조 클럽'에 안착했던 업계 1위 유한양행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해 자존심을 지켰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1조 6199억 원, 영업이익은 572.1% 성장한 843억 원을 기록했다.

유한양행의 호실적은 라이선스 수익 덕이다. 지난해 라이선스 수익은 1556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70%나 성장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8월 미국 프로세스 파머슈티컬사와 기능성 위장관 질환 치료 신약 YH12852 물질의 기술이전 계약을 5000억 원 규모로 체결했는데 이에 따른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반영된 것이다.

유한양행은 올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의 상용화에 따른 수익을 기대한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렉라자에 대해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현재 렉라자에 대한 급여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준비 중이고, 하반기에는 국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한양행과 함께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GC녹십자는 지난해 주력 사업인 독감 백신 수요 증가로 창사 이래 최고 매출을 썼다. GC녹십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기업명	매출		영업이익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유한양행	14,804	16,198	125	842
GC녹십자	13,571	15,041	417	503
한미약품	11,137	10,759	1039	487
대웅제약	11,134	10,554	447	169
종근당	10,793	13,030	746	1,239

유한양행 라이선스 수익에 '업계 1위' 자존심 지켜 GC녹십자, 독감 백신 수요 증가에 최대 매출 기록 수출 타격 한미약품·보톡스 전쟁 대웅제약 실적 ↓

대비 10.8% 증가한 1조 5041억 원, 영업이익은 20.6% 상승한 5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89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 우려에 따라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률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또 독감백신은 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비용처리를 하는데 지난해는 폐기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해 영업이익 개선이 이뤄졌다.

회사 측은 "주력 백신 사업의 내수 및 해외 실적이 모두 견고하게 성장했고, 연결 중속회사들도 주력 사업을 키우면서 실적 호조가 이어졌다"라며 역대 최고 실적을 이룬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창사 이래 최초로 '1조 클럽'에 가입한 종근당은 지난해에도 1조 매출을 훌쩍 넘겼다. 종근당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7% 성장한 1조 3030억 원, 영업이익은 66.2% 증가한 1239억 원을 기록했다.

만성질환 중심의 전문의약품(ETC) 매출 확대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등 기존

제품뿐 아니라 비만치료제 '큐시미아', 남성호르몬결핍 치료제 '네비도' 등 신규제품의 매출이 고루 증가했다.

특히 케이캡은 지난해 전년 대비 120% 성장한 719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폐렴구균 백신 수요가 증가해 프리베나 백신은 지난해 전년 대비 178 성장한 738억 원을 기록했다.

종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이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만큼 관련 '국산 2호' 코로나19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상위 5대 제약사 가운데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한미약품은 코로나19 여파와 기술수출 신약의 권리 반환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4% 줄어든 1조 759억 원, 영업이익은 53.1% 감소한 487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70.5% 빠진 188억 원에 그쳤다.

한미약품은 독자 개발한 주요 개량·복합 신약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내 원외 처방 매출 부문 등에서 호실적을 달성했으나, 해외수출 및 북경한미약품 등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

다만 한미약품은 올해 신약 2종 출시를 앞둔 만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허가해 KB증권 애널리스트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톨론티스'와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 등 신약 2종이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시판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만큼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 마일스톤 수령으로 실적 성장을 거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웅제약도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성장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2% 줄어든 1조 554억 원, 영업이익은 62% 하락한 17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7% 줄어든 252억 원에 그쳤다.

대웅제약의 아쉬운 실적은 2016년부터 이어온 보툴리눔 독신 군주 출처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비용과 알비스 판매금지 조치로 인한 매출 공백 등 비경쟁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다만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 매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13% 증가한 504억 원을 기록했고, 전문의약품(ETC)은 라니티딘 잠정 판매 중지로 알비스 매출이 완전히 제로됐지만, 전년 대비 매출이 0.1% 감소에 그친 7094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일반의약품(OTC)은 고품질 비타민B 복합제 임팩타인 매출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 성장한 113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신 군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의 갈등에서 미국 파트너사인 에블루스·메디톡스·엘러간이 3자간 합의를 이룬 만큼 소송비용 감소로 올해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합의에 대웅제약은 빠졌지만, 3자간 합의로 미국과 유럽에서 나보타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나보타의 수출이 본격화하고, 소송비용 감소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는 23일 미국 텍사스에서 cGMP 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자회사 美 생산시설 짓는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바이럴 벡터'

차바이오텍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바이럴 벡터'에 생산시설을 미국에 구축한다.

차바이오텍은 미국 자회사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마티카바이오)'가 23일(현지시간) cGMP 시설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선진GMP'다.

마티카 바이오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A&M 대학교 캠퍼스에 공장 부지 리스 계약을 맺고, 공장 설계에 착수했고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cGMP 시설에는 500 l 용량의 바이오투어터와 글로벌 수준의 제조설비가 구축된다.

마티카 바이오는 텍사스 A&M 대학교와 공동연구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마티카 바이오는 차바이오텍의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4년 완공될 제2판교테크노밸리 GMP 시설과 연계해 미국, 유럽, 아시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위탁생산·개발)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수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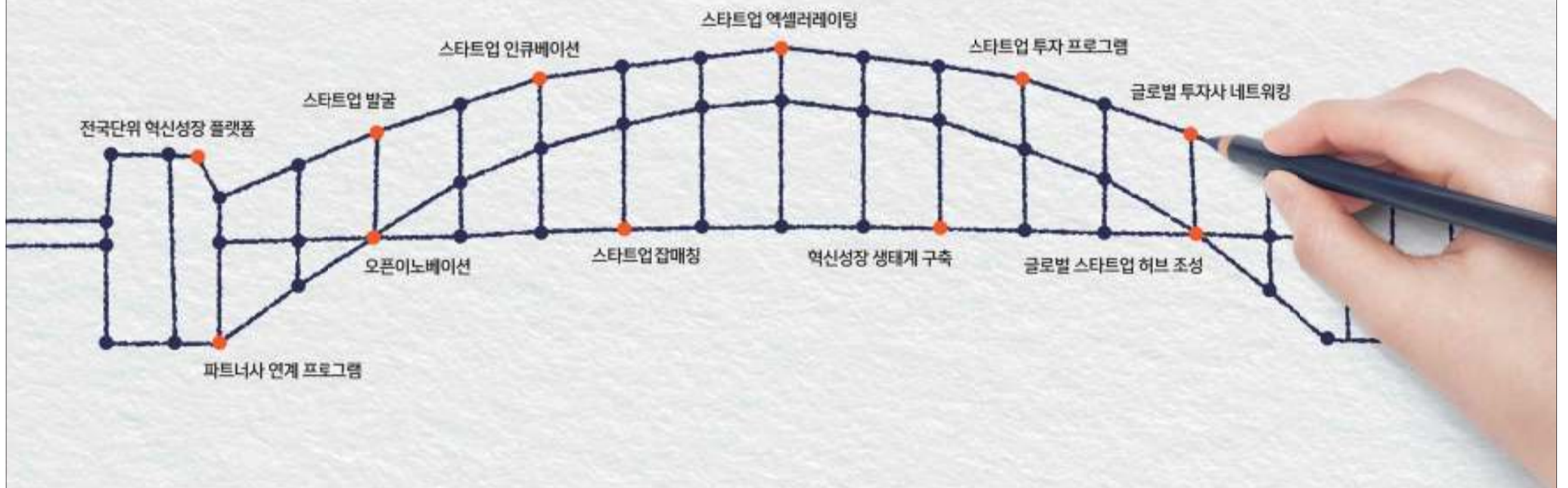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다리, 신한 스퀘어브릿지



이 다리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 성장의 내일로 나아가도록
신한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Hope Together.
Grow Together.



대한민국의 기회를 발견하는
기발한 프로덕션의 첫번째 이야기, 스퀘어브릿지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셀트리온그룹과 함께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도시형 생활주택 '세금폭탄' 피했다

“5층 이상 생활주택 임대사업 허용” 개정안 국토위 통과
중부세 합산배제 등 세금 감면...與, 이르면 6월 전 시행
아파트보다 규제 덜해 주목...강남권 중심 '고급화' 바람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집주인)이 '세금 폭탄' 우려를 덜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 말소 위기에서 벗어난 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틈새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범위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으로 이뤄진 소형 공동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을 말한다. 2009년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유형별로 원룸형과 단지형, 기숙사형으로 나뉘는데 원룸형이 가장 많이 공급됐다. 다른 유형보다 전·월세를 놓기 좋아서다.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세

주고 있던 임대인까지 덩달아 그 유탄을 맞았다. 건축법상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 아파트와 함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나 갱신·연장을 불허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은 청와대 청원 등을 올리며 반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혜택을 반납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을 처지가 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부세 산정 과정에서 별도 과세됐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다른 주택 등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층수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갈리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비



슷한 사정을 가진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이 몰리다 보니 제값을 받기 힘들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같은 세금 걱정이 해소될 수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6월 전까지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서둘러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들을 구제하려 한다. 중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전에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어서다.

그러잖아도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상품으로 떠오르던 차였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전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취득이나 처분이 편리한 덕분이다. 공급자로

서도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선회하는 시행사가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최근 서울 강남권에선 중·대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고급화 바람이 불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지난해 3.3㎡당 7990만 원에 분양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을 선 주택 중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쌌다. 지난해 가장 비싼 값에 분양했던 아파트인 '르엘 신반포 센트럴(4849만 원)'보다도 3.3㎡당 공급 가격이 3000만 원 이상 높다. 올해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이 3.3㎡당 7128만 원에 나왔는데 큰 인기를 끌며 청약 마감했다. 일각에선 이런 고급화 바람이 서민 주택 보급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다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일부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면서도 "주최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환급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당정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거래 강력 대응”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받나

지난해 설치 법안 발의됐지만
“과도한 시장개입” 의견에 계류
法발의 진성준 의원 반박문 발표
민주 “다음달 법안 통과” 재추진

법안명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내용	-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신고내용 조사 - 사업자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요청 -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행정 및 수사기관과 협조 등
현황	- 2020년 11월 발의 - 2021년 2월 국회 국토위원회 계류 중

※ 출처: 의원정보시스템

커진 상황이다. 다만 분석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반대 의견이 만만찮아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분석원 설치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석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반박하

는 자료를 발표했다. 진 의원은 “분석원 설치보다 기존 검찰과 국세청 등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국토위 (보고서) 의견은 법안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가능 내실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의원실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검토 의견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일은 드물다. 진 의원은 “빈약하고 편향적인 검토보고와 이를 인용한 보도로 국민 혼란이 크다”며 분석원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당정은 지난해 말 분석원 설치법 발의 후 올해 초 법안을 통과시켜 분석원을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분석원 출범 시 과도한 정보열람 권한과 중복 거래 감시 우려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국토위도 제동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는 이달 발표한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 문제와 미래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거래 정보 요청 권한이 너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분석원 설치의 지연됐고 국토부는 토지정책관 소속 ‘거래분석기획단’을 우선 출범시키기로 했다. 거래분석기획단은 향후 분석원 설립 시 흡수 통합된다.

하지만 당정은 분석원 설치 당위성을 주장하며 다음 달 관련법을 통과시킬 태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허위거래 신고 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의 시장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도 22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부동산거래법안이 통과되면 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분당 ‘한솔마을 5단지’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4개 동 115가구 증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사진)가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첫 사례다.

성남시는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고시했다.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수평 및 별동증축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12개동에서 16개동으로 4개동이 늘어나고, 가구 수는 1156가구에서 1271가구로 115가구가 증가한다. 연면적도 8만5908㎡에서 20만236㎡로 늘어난다.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지하 1개층 주차장을 지하 3개층으로 확대해 주차대수가 529대에서 1834대로 늘어나며, 작은 도서관과 주민운동시설, 주민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시작해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분당·평촌·산본·일산 등 1기 신도시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중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곳은 한솔마을 5단지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 중 승인받은 첫 사례다.

이번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계기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잇따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기 신도시 중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아파트는 총 29만2000가구로, 이들 아파트는 곧 30년 연한을 채워 재건축 대상이 된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강남 리모델링 단지 ‘수직증축 2호’ 도전장

가구 수 최대 15%까지 증가, 수평증축 비해 수익성 높아
‘대치현대’ 주민동의율 67%... ‘현대1차’도 수직증축 추진

서울 강남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잇달아 ‘수직증축’에 도전하고 있다.

수직증축은 기존 건물에 층고만 올려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평증축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 요건으로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곳은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는 23일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67%(3분의 2)를 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4월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

이다. 이영준 대치현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수직증축 1호인 성지아파트처럼 단단한 암반지대에 지내력(地耐力) 기초로 지어져 인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대치현대1차 아파트 역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은마아파트 옆에 위치한 이 단지는 일찌감치 조합 설립을 마치고 1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다.

김치봉 현대1차 리모델링 조합장은 “현재 2차 안전성 검토 중으로 연내 사업허가와 이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수직증축은 15층 이상 아파트에서 최대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다. 별동증축과 함께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조체(골조)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1차 안전진단과 1·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4차례 심사를 거친다.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한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 진행해 수직증축에 비해 2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많은 단지들이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 방식으로 선회하는 중이다. 2013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현재까지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이동훈한국리모델링협회정책법규위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 네이버부동산

장은 “국내 아파트 대부분이 콘크리트파일을 기초로 지어져 안전성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반이 단단해 지내력 기초로 지은 곳이 아니면 수직증축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2월 분양 4만 가구, 실수요자 관심 집중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설사들이 올해 마수걸이 분양에 나섰다. 업계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는 연초부터 분양시장에 주택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집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무주택자는 청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청약 경쟁률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성남시에서 분양한 '위례자이 더시티' 평균 경쟁률은 수도권 청약 사상 최고 수준인 617대 1을 기록했다.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행진이 계속되자 주요 건설사들은 새해 초부터 분양 행렬에 뛰어들었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3만9943가구다.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40만6562가구로 이 중 2월에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몰린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지난해 분양을 준 비하던 단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교통 인프라 강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총 1721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 △59㎡A 392가구 △59㎡B 54가구 △59㎡C 380가구 △75㎡A 110가구 △75㎡B 110가구 △84㎡A 489가구 △84㎡B 186가구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어린이집, H 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북카페, 상상도서관, 사우나, 게스트룸 등이 조성된다. 단지 주변으로 약 2만4782㎡의 근린공원이 들어서 산책이나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평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광역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로 접근하기도 쉽다.

도보 거리에 있는 포곡로 일대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마트, 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송도·청라 인접 미래가치 높은 거주지역

DL이앤씨 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

DL이앤씨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가 위치한 영종도는 앞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영종은 송도와 청라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3대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2025년 완공 예정) 착공으로 청라와 송도 접근성이 강화된다.

또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1050만 원대로 책정돼 인접한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자랑한다.

영종의 미래가치는 높은 청약 경쟁률로도 나타났



다. 특히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1군 브랜드 건설사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15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326명이 몰려 1순위 평균 경쟁률 7.2대 1을 기록했다.

트리플 역세권·한강 조망 '반포 새 랜드마크'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짓는 '래미안 원베일리'를 4월 분양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신반포23차, 반포경남아파트, 강남상가, 우정에체르1·2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다. 기존의 2433가구 아파트를 허물고 최고 35층, 2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퍼스티지'와 함께 반포대로변에 약 5400가구 규모의 '래미안 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한강 건너편의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에 이어 새로운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모



은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지하철 3·7·9호선(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올림픽대로와 반포대로도 가까이 있어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전용면적 84㎡ 600가구... KTX 계룡역 인접

GS건설 계룡자이아파트

GS건설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 5블럭에서 '계룡자이(Xi)'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

계룡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7개 동에 전용면적 84㎡ 총 6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 △84㎡A 290가구 △84㎡B 43가구 △84㎡C 170가구 △84㎡D 93가구, △84㎡E(펜트하우스) 3가구 △84㎡F(펜트하우스) 1가구다.

이 단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 KTX 계룡역이 단지 가까이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계룡 IC도 인접해 있어 전국 각지로



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도보 거리에 중심상업지구와 계룡 문화예술의전당·휴플러스·근린공원 등도 가깝다. 초등학교도 단지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다.

1만 3000여 가구 둘러싸인 '대규모 상권'

대우건설 아클라우드 감일

대우건설은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대형 상가 '아클라우드 감일'을 분양 중이다. 현재 호실지정 계약을 받고 있다.

감일지구 중심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아클라우드 감일은 지하1층~지상2층 3만8564㎡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지난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04.7대 1에 달했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단지 바로 아래 조성된다.

상업시설이 위치한 감일중앙로는 서하남 IC, 거여마천, 위례 신도시 등을 통하는 왕복 7·9차선의 주요 간선도로다. 입주민 증가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 앞으로 상권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일지



구 내 유일한 주상복합 상업시설인 데다 주변 1만 3000여 가구에 둘러싸인 상권이라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예약 관람제로 운영된다.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지상엔 공원 조성

포스코건설 더샵 거제 디클리브

포스코건설은 다음 달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서 '더샵 거제 디클리브' 아파트를 분양한다.

더샵 거제 디클리브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높이로 13개 동이 들어선다. 총 128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로 △74㎡형 263가구 △84㎡형 955가구 △98㎡형 7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는 2023년 10월 시작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단지를 남향 중심으로 배치해 조망권·일조권을 확보했다. 판상형과 타워형이 함께 들어서는 만큼 입주자 선택 폭도 넓혔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공원으로 꾸몄다. 실내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조명이거나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인 '아이큐백'이 적용된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도서관, 카페, 파티룸 등이 들어선다. 휴플러스와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영화관, 고현버스터미널 등 문화·편의시설도 단지 가까이 있다.

임대료 상승폭 제한으로 안정적 주거 보장

우미건설 파주 운정 우미린 더 퍼스트

우미건설이 4월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하 1층~지상 28층 높이로 총 846가구가 들어선다. 가구당 전용면적별로 59㎡·69㎡·84㎡형이 공급된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 분양 단지로 올 8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간지원 공공임대 아파트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에선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임대료 상승 폭도 2년 기준 5%로 제한된다.

우미건설은 일부 가구에 4베이 구조와 맞풍 구조를 적용해 채광·통풍 효과를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어린이집, 유아 영화관 등이 들어선다.

입주민을 위한 무인택배 시스템과 공구대여 서비스도 운영된다. 단지 인근에선 2023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영역이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운, 피의자 신분 전환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관련 출석 요구 2회 모두 불응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



당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다. 앞서 참고인 신분 이던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지만 불응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는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운(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절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종용 기자 deep@



개학 전 방역 철저

2021학년도 새 학기 개학을 엿새 앞둔 24일 광주 서구 금당초등학교에서 방역요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서관을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게 옳아”

“속도 조절” 표현 쓴 적 없어… 검사장 인사, 일방적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 관련)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법무부와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나 자질과도 조화가 필요하고 조직과 인사 체계 등 진단도 필요해 이와 연동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당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보호관찰소에 이어 대전고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으나 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검찰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며 “검사장 인사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다녀왔다.

김종용 기자 deep@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내달 재개

11일 2차 공준… 재판장 변경 합병과정 적법성·인지 등 쟁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달 22일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변경된 뒤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옥중 재판을 받는다.

다만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작업 목적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 계획안에 따라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 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은 합병 과정의 적법성과 이 부회장의 인지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의무화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장구, 팀빌딩, 도매인)

“마스크에 가려진 감동... 그래도 큰 힘 되죠”

이투데이 초대석

뮤지컬 ‘위키드’ 옥주현·정선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공연장이 문을 닫은 지금, 뮤지컬 ‘위키드’를 공연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관객들은 ‘매진’으로 호응하고 있다. 8세부터 80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다는 수식어에 걸맞게 매회 공연마다 관객의 박수 소리는 공연장을 가득 메운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공연계에 ‘위키드’는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2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위키드’의 두 주역 옥주현·정선아를 만났다. 옥주현은 “우리는 서로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첫 공연을 잊을 수 없다. 감동적인 조우였다”고 말했다.

뮤지컬 ‘위키드’는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동명 소설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초록 마녀가 실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세계를 구한 선한 마법사였다. 2003년 미국 브로드웨이 초연 이래 16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60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다.

옥주현은 초록마녀 ‘엘파바’로 2013년 이후 오랜만에 관객을 만난다. 정선아는 2013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즌까지 금발 마녀 ‘글린다’ 역을 꿰찼다.

정선아 “초연 때는 떨렸고, 재연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이 가장 떨린다”며 “이런 시국에 ‘피케팅’ (피튀기는 티케팅)을 뚫고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연 때는 합류하지 못했던 옥주현은 이번 ‘위키드’를 오래도록 기다려왔다. 옥주현은 “나이를 먹고 뮤지컬 배우 경험이



‘위키드’ 엘파바 역의 옥주현(왼쪽)과 글린다 역의 정선아가 23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스앤코



22kg 드레스 입고 춤추며 대사, 숨 턱까지 차오르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공연... “관객 마주하니 기쁘고 떨려”

쌓이다 보니 엘파바로서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위키드’가 유일하게 한국 무대에 올라간다는 점에서 책임감도 크지만, 자부심도 느끼고 하려 한다”고 밝혔다.

‘위키드’는 54번의 매끄러운 장면 전환, 12.4m의 거대한 타임 드래곤, 날아다니는 원숭이, 350여 명의 아름다운 의상 등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무대가 풍성해질수록 배우들의 숨은 턱까지 차오른다. 글린다는 22kg짜리 버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야 하며, 춤까지 춰야 한다.

옥주현은 “‘위키드’는 대사가 정말 많은데 배우들은 쉬는 시간 없이 무거운 옷을 갈아입고 아무렇지 않게 노래해야 하는 작품”이라며 “군대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연 맨 해외에서 공연을 처음 봤을 때 감동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번엔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작품 안에 겹겹이 들어있는 인생의 질문들을 던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흐른 만큼 옥주현에게 작품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다. 마법사 대학의 말하는 염소 교수 ‘딜라몬드’ 역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옥주현의 설명이다. 그는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설정은 많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옳음과 진실을 알려주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들이 몰살당하는 모습에서 불합리한 세상을 돌아보게 된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주현과 정선아는 초연 이후 8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오랜만에 함께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무대에 오르고 있었다.

정선아는 “언니와 쿡썩이 좋다”며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말했다. 옥주현은 “정선아는 글린다를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는 ‘정선아 글린다’ 보유국이지 않나. 자부심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옥주현과 정선아가 부르는 ‘디파이팅 그라비티’(Defying Gravity)와 ‘파퐁리’(Popular)는 관객들이 사랑하는 ‘위키드’ 대표 넘버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객은 마스크를 쓰고 한 칸씩 띄어앉아 공연을 관람해야 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환호성도 지를 수 없다. 이는 배우들에게도 낯선 일이었다.

정선아는 “원래 파퐁리를 부르면 관객들이 ‘뽕뽕’ 터지듯 웃어주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신 탓인지 너무 조용해서 낯설었다”면서도 “조용조용한 눈빛으로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쳐주시는 걸 보고 안심했다”고 설명했다.

옥주현은 ‘디파이팅 그라비티’를 부르기 직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관객을 보며 관객이 집중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제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관객과) 우리는 서로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며 “가리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기운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위키드’는 오는 5월 1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된다. 서울에 이어 5월 드림씨어터에서 부산 초연이 개막한다.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커피 한 잔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장상인 지음/ 이은아
침 펴냄/ 1만8000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지루한 회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울 때,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 비즈니스 미팅이 있을 때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찾는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힐링하고 대화를 나누고 작업에 집중한다. 우연히 발견돼 어느새 전 세계 사람들의 기호식품이 된 커피는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었다.

저자는 직접 탐방했던 파푸아뉴기니의 커피 농장과 일본의 커피와 맛 등을 책에 담았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음료가 아니다. 한 알의 커피콩에는 가난한 원주민들의 삶과 고뇌, 전통과 문화가 눈물처럼 배어 있다. 그 콩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배분되는 커피 로드에는 자본과 민주주의, 환경과 노동의 문제도 동시에 흘러다닌다. 문화와 예술과 학문도 그 길을 따라 여행한다. 커피 한 잔엔 역사와 문화의 인문학이 담겼다.



한국도자감정 세트 (전3권)
정양모 지음/
국민대학교출판부
펴냄/ 20만 원
우리나라미술품중
에서 가장 한국적이
고, 조형이 독창적이
고 뛰어난 것은 단연 도자기일 것이다. 한국

도자의 특징은 인간이 만들었으나 마치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조형성에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사학자이자 감정가인 저자는 2020년까지 거래된 도자기의 상당 부분에 대해 감정 의뢰를 받았다. 저자는 국립중앙박물관 퇴직 이후인 2000년부터 개인 사무실에서 감정 업무를 봤다. 이 중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2000여 건에 대해서 그 특징과 개성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전체와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자료화했다. 그중 640여 점이 책에 수록됐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안을 알고 실천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안이자,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안과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업에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9년 지음 / 200쪽 / 국민대학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지식을 얻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얻어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분명,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훈 지음 / 232쪽 / 4800원 / 215,800원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유효기간 없는 평생인증 KB모바일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아세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220호(2021.02.03), 광고물 유효기간 2021.12.31까지

“고객 평판이 금융사의 경쟁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세미나
“금소법 시행, 신뢰 회복 계기
기본 바로서야 나아갈 길 생겨”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네 번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고객의 신뢰를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결코 변화하지 않는 사실은 고객의 신뢰”이라며 “이번 3월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사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구조적 변화 진행되면서 소비 중심이 과거 기관에서 개인으로 이동 소비자 다양한 요구의 충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고객의 평판이야말로 금융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금

용권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하는 건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 및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밝혔다. 금융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김 회장은 “기본이 바로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며 “금소법은 신선한 자극제로

삼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법 주요 내용과 금융사 리스크 관리 방안 지족 금융권 소비자보호 미진한 점이 없는지 되돌아 보고 금융권이 나아갈 방안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비트코인은 거품” 이번엔 ‘닥터 돔’의 쓴소리

루비니 “가격 끌어올리는 세력 있어, 인플레이 헤지수단 아냐”

가상화폐 대중주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가운데 ‘닥터 돔’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사진) 뉴욕대 교수가 쓴소리를 했다.

2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전날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이 아니다”라면서 “투자자들이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말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면 전통적으로 유

한 헤지 자산에 분산했을 것”이라며 “그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이 헤지수단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과 3월 미국 증시가 35%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은 50% 빠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꼬리위험(tail risk, 블랙스완 같은 사건이 자산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짜 자



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만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가짜’ 자산으로 봤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인플레이션 우려나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에 따른 게 아니라 대규모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루비니 교수는 줄곧 비트코인 관련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왔지만 최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김창열 화백 ‘물방울’ 10억 넘겼다...작가 경매 최고가 경신

지난달 별세한 한국 추상미술 거장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사진)’ 작품 가격이 경매 시장에서 치솟고 있다.

서울옥션은 23일 강남센터에서 열린 제159회 미술품 경매에서 김창열의 1977년작 ‘물방울’이 10억4천만원에 낙찰돼 작가 경매 기록을 경신했다고 24일 밝혔다.

거친 마포 위 영롱한 물방울이 빛나는 이 작품의 추정가는 4억8천만~7억원이었으나 치열한

경합 끝에 낙찰가 10억원을 넘겼다. 김창열의 기존 경매 최고가 작품은 지난해 7월 케이옥션 경매에서 5억9천만원에 낙찰된 1980년작 ‘물방울 ENS8030’이다.

이번 경매에서 연대별로 출품된 김창열의 ‘물방울’ 8점이 모두 낙찰됐다. 지난달 케이옥션 경매에서도 김창열 작품 4점이 모두 거래되는 등 작가 별세 후 ‘물방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교육부 △감사관실 안희성 △운영지원과 최경식 △학교혁신지원실 유상범 △교육부(고려대 파견) 김한승 △인천시교육청 권영민 △(제주대 파견) 이병승 △(소주한국학교 파견) 김진철 △대변인실 주정훈 △고등교육정책실 김현아 △학교혁신지원실 박수경 김대진 이상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무추진단 지원근무) 강민지 △교육복지정책국 정금현 한한우 △학생지원국 양장욱 △국립국제교육원 이재복 △한국교육원대 이현석 강희은 △중앙교육연수원 안경찬 △서울시교육청 박윤철 김허중 이대혜 △세종시교육청 최성보 △경기도교육청 박은우 박남정 △충북도교육청 김희기 장중숙 △경남도교육청 이인숙 △학교혁신지원실 김현주 전동호 최영선 △학생지원국 양서운 △국립특수교육원 오영석 △한국교육원대 조인영 △

인천시교육청 박운혁 △대구시교육청 이운호 △울산시교육청 조정민 △충북도교육청 이지은 △전남도교육청 이민수

◆조달청 △과장급(공모직) △공사관리과장 윤일주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경제조사본부장(전무이사) 이경상 △국제본부장(상무이사) 강석구 △보임 △총괄전무이사 박종갑 △회원본부장(상무이사) 박동민 △산업조사본부장(상무이사) 박재근 △공공사업본부장(상무이사) 노금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보 및 보직 발령 △비서실장 김강표 △감사처장 이재면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처장 황성재 △" △예산처장 이범열 △" 안전전략실장 이종석 △경영지원본부장 민승기 △" 인재개발처장 한범중 △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장 신재용 △" 교통안전정책실 교통안전처장 김형섭 △"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복지처장 유경선 △" 철도안

전실 철도검사처장 신형진 △경기남부본부 안전사업처장 김도형 △대구경북본부 안전사업처장 이동근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김규호 △" 안전사업처장 최민호

◆손해보험협회 △승진 △손해보험1본부장 김지훈 △정부보장사업부장 주병권 △홍보부 홍보팀장 이윤노 △(전보)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이재구 △일반보험부장 방대진 △소비자보호부장 백승욱 △기획조정부 국제협력팀장 하성철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장 류종원 △일반보험부 일반보험팀장 김도균 △장기보험부 보상제도팀장 김수진 △자율관리부 판매채널지원팀장 안지홍 △자율관리부 모집관리팀장 진형오 △자동차보험부 자동차보험팀장 방병호 △공익업무부 보험사기조사1팀장 이용섭 △정부보장사업부 보장제도운영팀장 김봉진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디지털뉴스부 총괄팀장 박성준

“무역 현장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 기업 출신 회장다운 모습 보일 것”

구자열 무역협회장 취임
선친 이어...“집안의 영광”
규제 개선 소통 창구 기대



구자열 신임 한국무역협회장이 24일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민간기업 출신 회장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제31대 한국무역협회장에 취임한 뒤 밝힌 포부다. 무역협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구자열 회장을 차기 무역협회장에 공식 선출했다.

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평생을 기업 현장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7만여 회원사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무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의 공식 취임으로 무역협회는 1999~2006년 재임한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후 15년 만에 기업인 출신 회장을 맞이했다. 김 전 회장 이후 역대 무역협회장에는 정부 관료 출신 5명이 선임됐다.

구 회장의 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출신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무역업계는 구 회장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 회장은 1978년 평사원으로 LG

상사의 전신인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해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경험을 쌓았다. LG증권(현 NH투자증권)에서 국제부문 총괄 임원을 역임하는 등 국제금융 분야도 거쳤다. 이후 2001년 LS전선 재경 부문 부사장에서 2008년 LS전선 회장으로 승진했고, 2013년부터는 LS 회장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다.

구 회장은 선임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보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다. 15년 만에 민간기업에서 (회장이) 됐는데,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를 이어 무역회장을 맡게 된 것에 관해서는 “집안의 영광”이라 말했다. 구 회장의 선친인 구명희 회장도 22~23대 무역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구 회장의 취임으로 주요 경제단체는 모두 기업인 출신 수장이 맡게 됐다. 최태원 SK 회장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서울상의 회장에 취임했고 손경식 CJ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이끌고 있다. 허창수 GS 명예회장은 201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에 장경호 이녹스첨단소재 대표

코스닥협회는 24일 ‘제22기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장경호 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성장의 엔진, 코스닥’이라는 선전 아래, 올해 중목 목표로 코스닥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코스닥 시장의 내실 있는 발전, 뉴노멀 시대의 대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회 신임 회장으로 장경호 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했으며, 김경수 엔씨엔 대표이사 등 총 4명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류경오 아시아종교 대표이사 등 총 7명은 신임 이사로, 이재호 테스 대표이사는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이인아 기자 ljh@

메쉬코리아, AI 물류 확대 위해 김명환 최고기술경영자 선임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종합 디지털 물류 기업 메쉬코리아가 인공지능(AI) 물류 시스템 확대를 위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김명환 박사를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메쉬코리아의 CTO직책은 디지털 물류 시스템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물류 서비스를 개발 및 도입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명환 CTO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링크드인(Linkedin)’에서 친구 추천 서비스를 개발, AI 서비스 운영팀 리더를 거쳤으며 메쉬코리아 ‘Data & AI’의 헤드(Head) 직책을 역임했다.
최영희 기자 che@

부음

▲우원정 씨 별세, 우현재(우주씨앤티 대표) 씨 부친상 = 24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6일 오전, 010-4506-0002

▲전광진(전 전북대 교수) 씨 별세, 오수자(전 초등학교 교사) 씨 남편상, 전영우(MBC 통합뉴스룸 주간뉴스팀장)·영은(의상디자이너)·영경(미술 작가) 씨 부친상 =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02-2072-2018

자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배구조연구소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세 가지 논점

'가입'에 그칠 게 아니라, 수탁자 책임이나 ESG에 대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대화(Engagement)의 횟수만이 아니라 '대화의 품질'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기금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자금 위탁기관에 ESG 활동을 요구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1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와 '의결권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가 포함됐다. 즉, 'ESG 정보 공개 확대' 과제 외에도 2016년 12월에 제정 도입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등 개정을 검토하며, 이러한 역할을 매개하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관찰자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보니, 정책 입안자의 마음으로 실효성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책임감을 가지고 따져보자.

먼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와 비교할 해외 벤치마크 대상부터 정하자. 국제기업 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산하 네트워크(GSCN)에 등록된 스튜어드십 코드 멤버국은 18개국이다. 너무 많아 복잡하다. 게다가 코드 자체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므로, 제도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줄이자. 상법은 제정 당시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나 IMF 이후의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영미

법 영향이 컸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드를 제정하고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영국'이고, 2016년 한국형 코드 도입 당시 법 제도와 경제 문화의 '유사성' 차원에서 가장 많이 고려한 사례는 '일본'이었다. 따라서 이들 두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미래 로드맵 또한 감이 잡힌다.

그럼 이번 코드 개정의 논점들은 무엇이 될까? 단계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개정 과정과 내용이 참고된다. 일본 또한 2014년 코드 제정 후 2017년과 2020년에 두 차례 개정했다. 첫 번째 개정 시 강조된 부분은 공적 기금과 같은 자산 소유자(Asset Owner)가 자금 운용 위탁 시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를 통해 자신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감독·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칠 게 아니라, 수탁자 책임이나 ESG에 대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대화(Engagement)의 횟수만이 아니라 '대화의 품질'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기금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자금 위탁기관에 ESG 활동을 요구하

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기존에 '주식'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중심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비상장사와 인프라 투자'까지 대상이 추가되고 이행 주체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논점으로 강조돼야 할 부분은 다른 기관투자자와의 '연대'다. 영국이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는 투자자 연대 조항이 없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기관투자자와 협동(집단적 관여 활동)이 유익할 수 있다'고 해설하면서 1차 개정 시 이를 강력히 권고했다. 동시에 기관투자자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또한 필연적으로 강조되었다. 이후 일본의 주주 행동 관련 시장과 업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에서는 도입 당시 일본 코드와 지배구조 위협 등으로 재계의 격렬한 반대를 근거로 제외되었다. 하지만 지배구조뿐 아니라 ESG 경영이 총체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지금, 특히 사회와 환경 이슈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연대'의 필요성은 더욱 드러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의결권 자문기관의 역할이다. 일본은 1차 개정에서 자문서비스 회사의 조직, 이해 상충, 권고 의견 절차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2020년 3월 2차 개정에서는 기존 7개의 코드 외에 8번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 전반의 기능들(the functions of the entire investment chain)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할 것이다. 금융위의 세 번째 과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의결권자문사들을 규제할 경우 정책적으로는 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수탁자책임활동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명분이 생긴다. 필자 같이 자문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는 일견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업계의 생태계가 진화하고 업의 영역 또한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전문성이나 이해 상충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상황에서, 향후 법 규정으로 담보되어 그러한 노력이 공개될 수 있으면 오히려 자유도는 높아질 수 있다. 과연, 책임투자의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기고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핑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는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전하는 반면, 한은은 '빅브라더법'이라고 일갈한다. 의견조율은 실패하고, 이제는 국회로 옮겨가 공청회에서 일전을 남겨 두고 있다.

금융위가 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업종 간 기능을 통합하는 것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은 새로 도입하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2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신용카드사와 같다. 왜 그래야 할까?

핀테크에 맡겨질 종합지급결제사업은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에 성큼 다가선다. 은행을 제치고 직접 수신하는 데다가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달리 말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은 현재 선불과 직불 결제서비스만 허용된 빅테크에게 은행업(요불예금)과 신용카드(후불결제) 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그 일은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다루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의 소관이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금융을 앞세워 금융위 내 금융혁신기획단이 가로채겠다는, 찻잔 속의 용쟁호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민낯이다.

똑같은 후불결제인데 다루는 법률이 다르다 보니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업이요, PC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종합지급결제업이다. 금융거래의 속성이 아닌 단 말기를 기준으로 한, 이런 식의 업종 분류는 지극히 어설피고 혼란스럽다. 기존 법률과 업무체계를 흔들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영업 허가와 규제 신설은 정부의

영역이다. 이를 '빅브라더법'이라고 싸잡아 힐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감정은 밝혔지만, 문제의 핵심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을 포함하여 개인 간 송금과 추심, 유가증권 거래, 외국환 매매 등 거의 모든 금융활동은 한은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의 조정을 통해 완결된다. 그런데 현행 한은법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다. 은행법에 있는 '내국환 업무'라는 말조차 한은법에는 없다. 현재 한은의 내국환 업무는 '흔외자식'인 셈이다.

한은의 내국환 업무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금융결제원과 관계는 한은과 상업은행 간의 자율적 예금계약과 법무부 소관의 어음법·수표법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마당에 금융위가 소관 법률을 통해서 금융결제원과 업무관계를 공식화하려니 한은이 덜경 자식을 잃는 듯한 패닉에 빠졌다. 귀한 자식을 그동안 호적에 올리지 못했던 만사지탄이다.

결론적으로 '종합지급결제업'은 환상이다. 이미 각기 존재하는 은행업과 선불, 직불, 후불 결제사업을 함께 묶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거기에 한은의 패닉이 더해져서 핑음이 빚어졌다. 지금의 사태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風一匹)이다.

해결책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거품을 줄이는 것이다. 존재자의 수를 자의적으로 늘리지 말라는 '오컴의 면도날'을 기억하라. 은행에 보험이 결합된 방카슈랑스가 새로운 업종이 아니듯이 은행업과 선불, 직불, 후불 결제사업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업종은 아니다. 그냥 신규 허가일 뿐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 신설'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신설'의 완곡한 표현인 것이다. 논란이 많은 일을 가급적 들키지 않으려는.

만드시 늘려야 하는 존재자도 있다. 내국환 업무 즉, 한은과 금융결제원 간의 관계를 한은법에 담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한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의 존재 이유와 주업은 지급준비금 조정을 위해 한은과 협업하는 것이요, 혹시 금융위가 다른 일을 맡기더라도 그것은 부업일 뿐이다. 그 사실을 밝히면, 터널 끝도 비로소 밝아질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인종(仁宗) 명언
"어머니가 나의 죽음을 원하시니 이를 따르는 것이 효가 아니겠는가!"

25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다가 즉위한 조선 12대 왕. 중종(中宗)의 맏아들. 친모(장경왕후)가 죽고 문정왕후가 새어머니 일 때 세자 거처인 동궁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자 그가 한 말. 그는 오늘 태어났다. 1515~1545.

☆ 고사성어 / 질병지경초(疾風知勁草)
세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강한 풀을 알 수 있다는 말. 간난을 겪어야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음을 비유한다. 후한서(後漢書) 왕패전(王覇傳)이 원전. 한(漢)의 황제위를 빼앗아 신(新)나라를 세운 왕망(王莽)의 악정이 계속되자 민중이 봉기했다. 훗날 광무제(光武帝)가 된 유수(劉秀)가 40만 왕망군과 1만여 명으로 격돌할 때 왕패도 참전해 예상을 깨고 대승을 거뒀다. 고된 원정 전투를 견디지 못해 이 탈자가 속출하자 유수가 그에게 한 말. "끝까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구나. 세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강한 풀을 알 수 있다[疾風知勁草]고 하더니."

☆ 시사상식/지물쇠 효과(lock-in effect)
기존 제품 및 서비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나와도 이미 투자된 비용이나 기회비용, 혹은 복잡하거나 귀찮아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을 무상이나 저가에 제공해 고객을 확보(고착화)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미련(未練)
원래는 연복(纏服)을 입지 않는 기간이란 뜻.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인 소상(小祥) 전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말이다.

☆ 유머 / 천국 가면 놀랄 일
첫째, 안 울 줄 알았던 사람이 왔다.
둘째, 울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다.
셋째, 자기가 와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내 연구 기자재와 실험·실습 장비가 1년 넘도록 멈췄다. 학생 교육을 위해 원격 강의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대학의 투자는 계속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에 지원해주던 '비대면 교육인근지원금(지원금)'을 올해 끊었다.

새로운 학사 환경 구축 등으로 예산 소요가 늘어나는 대학이 시름에 빠졌다. 13년째 등록금 동결, 휴학생 증가,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등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이 재정 지출을 늘려 교육 혁신을 하라고 하니 기쁠 곳

기자수첩



손현경 사회경제부/son89@

벼랑 끝 대학, 손놓은 교육부

도 없다. 서울 A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비율을 확 줄였다"며 "우리 대학은 지난해 마이너스 90억 원의 적립금이 손해가 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적립금은 '적금'이라 보면

되는데 대학 운영 자금으로 이를 갯값 빼먹듯이 쓰는 것이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은 우선 자산을 정리 중이다. 대학이 '중장년'으로 여겨왔던

설립 자산인 교육용 기본자산을 정리하는 것은 그만큼 대학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문제는 대학의 재정난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강의를 통합해 대형 강의를 늘리고 전임 교원의 빈자리를 비전임 교원의 강의로 채우는 현상이 대학가에서 일반화하고 있다. 노후화한 기자재들도 많다. 실력이 좋은 교수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

대학이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지금은 모두 어려운 시기다. 직접적인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때다.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본사, 자본시장부, IT중소기업부, 정치경제부, 금융부, 유통바이오부, 사회경제부, 부동산부, 디지털미디어부, 국제경제부, 산업부, 사진영상팀.

SAMSUNG

신혼맛집

비스포크 페스티벌

꽃길만 걸어갈 커플들을 위해
품목부터 취향까지 딱 맞춘
신혼 쇼핑 맛집 삼성비페

첫 시작은 맞춤가전 원조 맛집
비스포크와 함께
BESPOKE Festival

